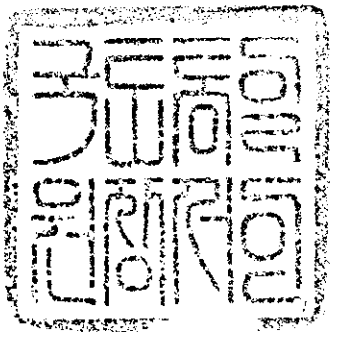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1月



研 究 機 關 : 서울신문統一安保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 金 鎭 福
研 究 委 員 : 韓東元 金俊吉 姜亨錫

序

이 研究는 南北対話時代에 統一問題의 国内弘報政策을 具体的으로 展開하는 方案을 構想한 것이다. 南北対話는 統一問題에 관한 現在의 政策方向을 全面的으로 再検討하게 만든 새로운 時代를 열어주고 있다는 大前提아래 이 研究는 統一問題에 관한 새로운 発想의 国内弘報政策을 보다 具体的으로 展開하는데 主眼点을 두었다.

이 研究에서 統一問題의 国内弘報政策 곧 「統一弘報」는, ① 政府의 統一政策 ② 対内体制의 優位性 ③ 北韓体制의 弱点등 세가지 側面으로 区分된다.

따라서 그 目標設定과 政策方案開発이 以上 세가지 側面에서 追求된 것은 물론이다.

먼저 이 研究는 現在의 弘報政策方案을 批判하기에 앞서 北韓의 対南宣伝을 살펴보고 現況의 問題点을 抽出하여 새로운 発想의 指標를 찾고 있다. 그리고 本論에 해당하는 統一弘報의 展開方案은 基本目標, 弘報内容, 弘報方法을 중심으로 具体的으로 展開하는 한편, 統一弘報政策의 主体가 되는 政府의 弘報行政体制의 改編을 提議한 것이다.

目　　次

Ⅰ. 北韓의 対南宣伝 7

1. 基本目標와 戦略 7

2. 主題와 方向 8

i. 自主的 平和統一 8

(1) 南北聯邦制 13

(2) 大民族会議 14

ii. 外勢排撃과 美軍徹収 16

iii. 反政府 反体制 暴力革命 16

iv. 南北会談의 主導 主張과 停滞責任転嫁 17

v. 南韓의 安保体制 弱化試図 17

vi. 金日成 리더쉽과 北韓体制의 誇張 18

3. 最近의 特徴的 動向 18

i. 平和統一方案 18

ii. 反政府煽動 19

Ⅱ. 対内弘報現況과 問題点 21

1. 観念的 弘報内容 21

2. 弘報事業의 惰性化 24

3. 弘報媒体에 대한 不信風潮 26

Ⅲ. 統一弘報의 展開方案 29

1. 基本目標 및 方向 29

2. 弘報内容 37

i. 統一政策 37
(1) 南北聯邦制의 虛構 38
(2) 大民族会議의 虛構 45
ii. 対内体制 49
(1) 安 寧 49
(2) 福 祉 50
(3) 生 活 51
(4) 感 覚 53
iii. 北韓의 実相 54
(1) 神話的 恐怖 56
(2) 貨幣의 意味 58
(3) 首領과의 関係 58
(4) 聖書, 聖画, 聖歌劇 60
3. 弘報方法 61
i. 마스콤 61
(1) 北韓뉴스의 報道와 論評 61
(2) 共産圈 紀行報道 66
(3) 도큐멘터리 発掘 67
ii. 教 育 69
(1) 目標와 方向 69
(2) 教育内容 71
(3) 教員専門化 74

iii. 大衆行事 77
(1) 行　事 77
(2) 紀念館 80
4. 行政体制 82
i. 分断諸国의 統一機構 82
ii. 韓国의 統一問題機構 86

I. 北韓의 対南宣伝目標와 方向

1. 基本目標와 戰略

北韓의 対南宣伝은 韓半島에 統一共産 政権의 樹立을 窮極的인 目標로 設定하고 있는 北韓共産主義 集団의 対南戰略의 선봉적 수단으로서 心理戰의 次元에서 遂行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対南宣伝은 이른바 「南朝鮮革命戰略」과 同一한 体系에서 組織되고 있다.

北韓의 対南革命戰略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外勢, 즉 美国勢力을 추방하고 現体制를 전복하여 「先進的 社會体制」를 구축하는 것이 基本課題가 되고 革命의 動力으로는 「労動者 農民, 진보적 청년학생, 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와 小自産階級」을 設定하고 있다.

이들 (革命階級)은 「革命力量을 부단히 축적하여 결정적인 時機를 準備있게 맞이하는것」이며 그 「결정적 時機」가 오면 北의 「革命力量」과 결합, 共産化統一을 이룩한다는 論理이다.

対南宣伝은 이같은 対南革命戰略과 보조를 맞추어 宣伝이 지닌 本質的인 機能과 期待効果에 따라 3단계의 基本目標를 設定하고 있다.

첫째 南韓人民의 思想武装 解除 둘째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 造成 強化 그리고 셋째로 共産主義革命 誘導이다.

이같은 基本目標에의 接近방법으로 南韓社會의 階層을 心理戰의 次

元에서 分類하여 対象別 宣伝目標와 方向을 設定하고 있다.

心理戰의 次元에서 展開되는 対南宣伝의 総体的인 対象으로는 労働者, 농민, 진보적인 청년 학생, 「인테리」層, 都市의 小資産階級, 軍人등 이른바 「民主力量」이다. 民族의 基本課題인 統一問題에 対한 그들 自身의 妥當性을 浮刻시키면서 그들体制의 우월성을 과장하는 한편 南韓의 体制와 社會相을 相対的으로 왜곡 非難하므로서 南韓內에 同調勢力을 造成한다는 것이 當面 目標가 되고 있다.

2. 主題와 方向

上述한 目標와 戰略으로 遂行되고 있는 対南宣伝은 ①自主的 平和統一論의 제시 ②外勢배격과 긴장완화를 구실로 한 駐韓美軍철수 ③南北會談의 主導的 추진 停滯책임 전가 ④南韓指導層 重傷비방 ⑤反共体制一掃 ⑥北韓体制 과장 ⑦統一共産 政權과 金一成「리더쉽」의 當為등으로 要約되는 基本的인 政治的 主題를 갖고 이를 客観的 狀況의 變動에따라 그때그때 戰術的 修正을 加하면서 發展시키고 있다.

主題的 宣伝方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自主的 平和統一

北韓이 南北分斷아래 지금까지 一貫하여 対南宣伝에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 論은 南韓의 共産革命완수라는 対南基本戰略위에 乱舞되고 있는 戰術的, 宣伝的 口号로서 7.4 南北共同声明 이후 韓半島情勢의 積極的인 發展에 따라 対南宣伝에

서 더욱 重点的인 主題가 되고 있다.

北韓의 平和統一論은 南北으로 分断된 韓半島에서 政治·軍事的 緊張과 対立의 諸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 美国을 비롯한 「유엔」의 政治的 軍事的 介入을 「外勢」로 規定하고 이들 排除하는 것을 一次的인 目標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駐韓美軍의 철수와 「언커크」및 유엔군사령부의 解体를 一貫하여 주장하는 宣伝方向이 定立되고 있다.

이같은 前提条件이 充足되면 軍事力의 감축과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南北間의 幅넓은 政治協商을 통해 政治·経済·社会·文化등 多方面에 걸친 交流와 合作을 통해 南北聯邦制로 移行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北韓의 平和統一論은 그것이 그들의 対南革命戦略과 表裏의 関係를 이루고 있는 것임을 쉽게 看破된다.

美軍의 철수와 軍事力減縮 및 平和協定체결은 南韓의 安保態勢 弱化와 反共思想의 退潮를 企図하는 戦術이며 南北間의 幅넓은 政治協商은 南韓의 各界와의 広範囲한 接触을 통한 이른바 統一戦線 戦略의 推進인 것으로 分析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이 이같은 対南革命戦略의 宣伝的·戦術的 表現인 平和統一論을 처음으로 挙論한 것은 分断직후인 1946년이다.

金日成은 平和統一口号의 裏面에서 北韓政権을 樹立, 定着시키고 이어 6.25動乱 準備를 偽装하였다. 金日成의 平和統一口号의 虚偽性을 결정적으로 実証한 6.25動乱은 戦争의 性格때문에 「유엔」軍 및 中共軍이 参戦하므로서 外勢介入을 自招하였으며 民族과 国土의 人為的 分断状態를 極端的인 相互不信과 敵対感情을 불러일으켜

民族의 同質性마저 위협받는 狀態로 発展되기에 이르렀다.

金日成은 民族의 禍難을 불러 일으킨 그의 平和統一論을 休戰되기 무섭게 다시 対內外 및 対南宣伝에 동원 했다.

休戰이후의 平和統一口号는 戰禍복구의 時間的 여유를 얻기위한것으로 볼 수 있으며 66년이후 72년까지는 金日成 独裁体制強化와 軍備拡張을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는 南北間의 対話있는 対決의 主導와 対南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위한 것으로 評価되는 것이다.

金日成의 平和統一口号는 그의 党이 中·蘇紛争에서의 活路를 찾기 위해 「自主性」 선언한 66년이후 自主的 平和統一 로 口号의 의 戰術的 修正을 갖고 「自主」에 따른 外勢배격을 平和統一의 필수적인 前提로 積極 立唱했다.

韓半島의 統一이 美国, 蘇聯·中共등을 주축으로 하는 国際情勢와 不可分의 関係에 있으며 分断과 6·25동란介入 그리고 休戰後 南·北이 각각 이들 強大国과 軍事的 조약을 맺고있는등 국제정세의 복잡한 要因과 얽혀 分断狀態가 계속되고 있다.

金日成은 이같은 복잡한 要因을 一切 묵살하고 統一은 民族內部의 問題라는 독단적인 規定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독단적인 規定은 韓半島를 分断한 美·蘇등 強大国이 이를 다시 再統一시켜야 할 国際的 責任을 자진하여 면제해주는 歷史的 過誤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야 한다.

결국 金日成의 「自主的 平和統一」論은 弱小国들로 된 이른바 第3勢力과 反西方勢力의 同調를 얻어 統一問題를 国際関係에서

유리시켜 美国의 역할을 봉쇄하자는 戰術的 目的을 갖고 있다. 또 国內的으로는 「自主」가 갖는 口号的 強点을 金日成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에 대한 同調勢力을 성장시켜보자는 策略이 깔려있다.

北韓의 이같은 平和攻勢는 6.25動乱의 체험으로 定着된 南韓의 本能的 反共思想에 부딪쳐 説得力을 전혀 発揮하지 못했다. 그러나 南北対話以後 統一에 関한 관념에 劃己的인 変化가 생기자 南韓의 새로운 思潮에 敏感히 対処하는 새로운 方向에서 「自主的 平和統一」口号는 다시한번 外形이 整理되어 対南宣伝의 重点主題로 등장했다.

北韓의 平和統一論에서 가장 先決的인 要素이며 가장 重点的인 力点이 주어지는것은 美軍撤収인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들은 美軍의 駐韓이 統一問題解決에 있어 最大의 장해요인이요 美軍만 撤収하면 自主的 平和統一은 즉각 성취될 수 있다는 主張을 積極化하고 있다.

그들의 이같은 論理는 한마디로 말해 韓半島의 軍事的 戰略関係를 一次的으로 計算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美軍의 撤収로 南韓에 軍事的 취약상태를 造成, 南北間의 軍事力 均衡을 깨뜨려 優勢한 北韓의 軍事力을 배경으로 統一問題에 提起되는 모든 形態의 方法에 有利하게 그리고 主導的으로 対処하겠다는 것이다.

自主的 平和統一의 方案으로서는 平和統一論의 対南革命戰略体系와 「이데오르기」的 本質을 은폐하고 그때그때의 情勢에 따라 南北協商論에서부터 시작 南北総選挙論, 南北聯邦論, 南北交流論, 平和協定締

結 및 10萬減軍論등 虛構的인 낱말들을 동원 南韓의 民立勢力과 民族主義者들의 一般輿論에 호소한다.

이같은 臨機응변적인 統一方案은 朴正熙大統領의 6.23平和統一外交宣言에 충격을 받아 이른바 平和統一 5大綱領으로 다시한번 緊急 整理되었다.

朴大統領의 6.23宣言発表 10時間後에 発表된 이른바 5大綱領이란

① 軍事的 対置状態의 解消와 緊張緩和

②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의 実現

③ 大民族会議召集

④ 高麗聯邦共和国 口号에 의한 聯邦制 実施

⑤ 高麗聯邦共和国 口号로 「유엔」単一加入이다.

北韓의 対南宣伝은 6.23宣言以後 우리側의 새로운 平和統一外交政策이 마치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것인양 賊友 荷杖으로 왜곡 中傷하고 金日成의 平和統一基本方案이란 이른바 5大綱領이라는 것을 反撥的으로 対内外에 浮刻시키려고 하고있다.

「5大綱領」이란 北韓이 分断以後 지금까지 상투적인 宣伝口号로 되풀이해온 平和統一의 諸方案들을 번호를 붙여 묶어놓은것에 불과하다. 이 「5大綱領중 核心이 된다고 할 수 있는 「南北聯邦制」와 「大民族会議」의 背景과 内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内容의 虛構性分析은 Ⅲ章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 南北聯邦制

南北聯邦制를 北韓이 처음으로 提案한 것은 4.19以後 南韓에서 平和統一論爭이 한창벌어지고있던 1960年의 8.15記念式에서 행한 金日成演說에서 비롯된다.

이 연설에서 金日成은 「外勢의 간섭없이 南北總選擧를 実施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조치로서 南北聯邦制를 実施하자 南北聯邦制는 南北의 現存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독자적인 活動을 보장하는 동시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合議를 組織하여 주로 南北의 経済 文化発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하자……」는 제의를 했다.

이같은 南北聯邦制 제안은 그후 南韓의 5.16革命과 北韓內部의 戰爭準備政策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69年 8.15기념식에서 행한 金一(당시 第一副首相)의 연설에서 다시 提起되었다.

그후 1971年 4月12일 外相 許淡이 発表한 8個項目의 統一方案가운데서도 提案되었다. 그리고 南北対話와함께 公式的으로 南北聯邦制를 提案한것은 1972年 9月17日 金日成의 日本 每日新聞기자와의 会見에서였다.

그후 南北対話가 본궤도에 들어감에 따라 제2, 제3차 南北調節委員会에서 北韓은 平和統一의 첫걸음으로 武力증강과 軍備경쟁중지, 外軍철거, 軍隊와 軍備의 縮小, 外国으로부터의 武器搬入 禁止 및 平和協定締結등을 重点的으로 주장했다.

그러다가 朴正熙大統領의 6.23宣言에 당황, 「高麗聯邦共和国」이란 名称을 덧붙여 다시 南北聯邦制를 提案한 것이다.

北韓이 1960年以後 現在까지 提議한 南北聯邦制는 內容面에서 그 그 어느것이나 同一한 것이나 南北対話 以前과 以後의 提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差異点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南北対話以前에는 独立的인 諸統一方案을 제시하고 択一하라는 式이었는데 対話以後에는 南北聯邦制를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関聯시켰다.

둘째, 対話以前에는 南北聯邦制를 宣伝的이거나 대중적 闘爭과제로서 提起한데 비해 対話以後에는 그와같은 과제는 물론, 対話當事者간의 主題로서 제기하고 있다.

셋째 対話以前에는 南北聯邦制 実現에 아무런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南北간 軍事問題解決을 先行条件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北韓은 南北聯邦制를 提起하는것 자체에서 어떤 効果를 노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행의 단계에서 前提条件을 하나 하나 늘려가면서 2重, 3重으로 묶어놓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大民族会議

北韓은 「大民族会議」의 召集 必要性에 対해 「統一問題」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北과 南의 広範한 各層各階 인민들이 祖国統一을 위해 挙族的인 愛国事業에 参与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우 必要하다」고 전제하고 「祖国統一을 위하여 北과 南 사이의 対話가 다만 南北 당국자들 사이의 範囲에서만 그칠것이 아니라 全民族的인 範囲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大民族合議」주장 역시 오늘에 와서 새롭게 提示된것이 아니며 해방후 金日成政權이 수립되는 時機부터 줄곧 宣伝하던 従前立張에 그 淵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중 重要한 것들을 간추려보면 1948年 3月25日 「北朝鮮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명의로 発表한 첫번째의 南北政治協商提議 이어 50年 6月7日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명의의 呼訴文을 통해 「南北정당 社合단체 代表者 協議合」 개최 提案이 있었고 4.19이를후인 60年 4月21일 南北朝鮮의 諸政党, 社合団体 連席合議 構成提議, 또 71年8月6日 「시하누크」 환영 平壤市群衆大合에서 행한 金日成의 연설, 73年 4月16日의 두번째 「시한누크」환영연설에서 「南北調節委員合에 각 政党社合団体代表 代表 및 各界各層人士들을 参加시켜 그 帳을 넓히던지 아니면 別途의 政治商合議를 召集」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이 北韓은 1948年에 「유엔」감시하의 「南韓総選挙, 1950年의 南侵은폐, 60年의 4.19以後 南韓政局混乱逆用, 그리고 70年대에 들어 東西緊張緩和와 南北対話에 便乗하여 모처럼의 南北當局者間交涉인 「南北調節員 會를 完全히 有名無実한 存在로 만드는데 力点을 두고 政治協商合議와 異名同質인 「大民族合議」를 提示한 것이다.

「大民族議」의 이같은 內容과 背景에서 우리는 北韓이 政治協商이던 大民族合議이던 그때그때의 그들 目的에 따라 前提条件과 協商対象을 바꾸어가며 共産主義式 統一戰線 戰術宣伝과 선동전술을

駆使하고 있음을 뚜렷이 엿 볼 수 있다.

ii. 外勢배격과 美軍撤収

北韓은 南北으로 分断된 韓半島의 緊張要因을 美軍의 南韓駐屯과 対韓軍事援助를 하고있는 美国으로 断定한다.

따라서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維持하며 나아가서 平和的統一을 모색하기위해서는 美軍의 撤収와 美国의 対韓軍事援助를 中断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宣伝方向이다.

이같은 宣伝方向의 底意는 上述한바와 같이 韓美関係를 離間시켜 韓国을 外交的 軍事的으로 孤立시키자는 것임을 両論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이같은 主題의 展開와 함께 現집권층을 事大主義者로 몰아 비난하고 南韓의 経済発展은 外国예속경제로 비방하며 특히 日本의 経済侵略을 対南宣伝에 보다 積極的으로 挙論하고 있다.

iii. 反政府 反体制 暴力革命

南韓의 政治 経済·社会·文化등 모든 分野에서의 모순을 과장, 歪曲 비방하는 宣伝은 北韓의 対南宣伝에서 平和統一論 못지 않게 重要한 의의를 갖고 악랄하게 展開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① 우리지도자 中傷, 비방 ② 政府施策, 言論 논조비난 ③ 勤労者들의 비참한 生活上 과장 ④ 知識人 및 青年学生들의 反体制運動선동 ⑤ 10월유신과 6.23宣言비방 ⑥ 反政府的인 統一戦線 형성 촉구) 등에 宣伝方向이 設定되고 있다.

iv 南北会談의 立導와 停滞責任 전가

北韓은 7·4南北共同声明과 南北적십자会談을 金日成의 이른바 平和統一 3大原則을 南韓側이 받아들임으로서 비롯된것으로 宣伝한다.

金日成이 分断이후 一貫하여 展開해온 対南平和攻勢를 南北対話에 対한 그들의 主導的 役割을 입증한다는 資料로 転用하고 있다.

南北対話에서 提起된 그들의 諸条件에 대한 宣伝은 다른것에 비해 그리 대단한 重点을 주어지지 않는듯 하지만 南北対話의 지나친 発展을 경계하고있는 北韓은 언제라도 必要에 따라 対話의 発展을 막을 구실을 留保하기위한 전술로 対話에 임하는 南韓側의 立場과 자세를 始終一貫 비난하고있다.

이같은 비난은 対話 継続의 必要性이 있을경우는 南北対話推進에 対한 그들側 熱望의 反証으로 利用되고 対話의 中断을 획책할 경우에는 中断의 責任전가 구실로 역용한다.

金英柱의 8.28声明以後는 主로 南北調節委의 서울側 当事者의 人身攻撃과 우리側의 이른바 「両面戦術」 비난에 対南宣伝의 상당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v. 南韓의 安保体制弱化시도

北韓은 南韓의 10월유신을 反共体制強化로 보고 이의 瓦解내지 混乱을 助長하기위해 10월유신의 重傷·비방에 그 宣伝方向을 設定하고있다.

또 中央情報部비방, 軍事訓練기피선동, 国軍의 士気저하를 노린 중

상, 비방등과 平和統一努力의 위장선전등이 범주에 속한다.

vi 金日成「리더쉽」과 北韓体制의 과장

北韓의 対内宣伝에서 絶対的인 力点이 주어지고 있는 金日成의 唯一思想선전이 対南宣伝에서도 修正없이 動員되고 있는것은 金日成을 韓半島의 唯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強要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들은 이같은 엉뚱한 목적아래 이른바 「革命伝統」 및 그의 功績등을 반복하므로서 金日成우상화를 시도한다.

그밖에 北韓의 諸般 成果를 과장하고 있는데 특히 南韓의 階層에 따라 分野別 成果를 나열한다.

3. 最近의 특징的 動向

最近에 들어 北韓의 対南宣伝은 「유엔」総会를 意識한 平和統一方案에 관한 그들 主張 中央情報部 비방 그리고 青年学生들에 대한 反政府闘争선동積極化로 특징지어진다.

i 平和統一方案

朴正熙大統領의 6.23宣言의 利己的인 内容이 国際社会에서 커다란 同調를 불러 일으키자 그들은 그것이 「2개의 韓国으로 永久分断을 企図하는것」이라고 規定하고 이에대한 反撲을 積極化하고있다.

그들은 対外的으로는 南北韓이 東西独의 境遇와는 다르다면서 特히 非同盟 中立勢力을 대상으로 同調工作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対南宣伝에서는 6.23宣言을 「反民族」的인 것으로까지 왜곡 規定하고 우리의 指導層을 民族分裂主義者라고 비방하면서 「民族의 分裂을 企図하는 南韓當局者와 南北対話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金日成은 지난 10月末 「統一은 武力으로 이룩하겠다」고 公言하는 極端的인 言動을 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한마디로 6.23宣言의 現実的인 妥当性앞에 달리 代案을 樹立할 수 없게되자 이를 悪意에찬 対南宣伝 資料化하여 거의 마지막인듯한 論調를 펴고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韓国문제討論가 対決을 避하고 共通点만을 採択하는 妥協案으로 終結되면서 南北対話계속에 대한 国内外로부터의 새로운 圧力에 直面하게되자 対南宣伝의 論調에 多小 修正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3宣言은 民族分裂을 永久化시키는 政策이라는 最近의 宣伝方向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思料된다.

ii 反政府 反体制선동

北韓의 最近 対南宣伝中 特記해야 할 것은 反政府. 反体制의 直接的인 선동工作이다.

그들은 南北対話의 中断 구실로 내세운 金大中氏事件을 極大化하여 이에대한 猛烈한 비방을 계속하고있다. 그들은 이事件에 관한 비방 大象을 처음에는 中央情報部에 局限시키는듯하더니 政府當局으로 拡大하고 이어 反体制로 에스컬레이션」하고 있다.

이와함께 最近의 学園事態를 機敏하게 逆用, 学生들의 民主闘争이

全国的으로 拡大되고 또 深刻해지고 있다고 宣伝하면서 学生과 青年들의 일제 봉기선동을 계속하고있다.

이같은 일연의 対南 비방과 선동이 7.4南北共同声明의 위반이라는 糾弾에 대해서는 南韓側이 対話분위기를 먼저 害치고 있다는 共産主義 특유의 責任転嫁로 응수하고있어 南北対話의 初期에 보였던 自制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이같은 양상은 対話以前状態를 능가하고 있다.

II. 対内弘報現況과 問題点

窮極的인 목표인 平和統一을 이룩하기위한 基盤造成은 国民福祉를 指向한 経済의 高度成長, 自主的인 国防力의 強化등에 의한 国力培養에 있으며 平和統一 目標로 接近하기 為한 現実的인 弘報政策으로는 南北韓의 UN同時加入, 南北対話의 主導的인 推進등이 가장 重要한 主題가 되고있다 하겠다.

弘報方法에 있어서는 主管部인 文公部를 비롯 統一院, 国防部, 文教部, 中央情報部, 反共聯盟, 弘報協会, 内務部등 関係部処에서의 新聞放送등 마스메디아活用, 弘報冊子配布, 취약지구巡廻강연 各種紀念行事에 의한 啓蒙活動, 教育訓練, 反共有功者표창등의 弘報事業을 빌리고 있으나 体制, 運営, 内容面에서 적지않은 問題点들을 内包하고 있는 것으로 判断된다.

; 1. 観念的 弘報内容

(1) 現在 関係機関에 의해 展開되고있는 対内弘報는 高次元的인 原則論解説과 南北対話의 現状説明 그리고 北韓共産主義에 대한 原論的인 批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弘報対象을 全혀 意識하지않고 있다는것을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現状은 結果的으로 弘報가 公式的이고 形式的인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는것이며 따라서 広範囲한 国民階層으로부터 完璧한 理解와 共感을 얻기가 어렵다고 볼수있다.

(2) 우리의 지금까지의 弘報內容은 冷戰体制의 論理위에 근거를 둔것으로 伸縮性이 欠如되어 있었다.

우선 統一政策이 確固하게 確立돼있지 않았으며 時代的인 흐름에도 제대로 맞아들어가지 않는것이 었다. 이러한 統一政策은 統一弘報를 효과적으로 展開할수있는 基調가 될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유엔 監視下의 南北総選挙」라는 政府樹立以来의 統韓政策이 아직까지도 有効한것인지 아니면 6.23 宣言에 의한 새로운 統一政策의 提示로 自動消滅된것인지 적어도 大部分의 国民들은 알지못하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友邦인 美国의 対 UN影響力이 弱化되는 反面 非同盟国家들의 発言権이 점차 強化돼가는 UN의 構造的変化와 強大国들이 国際政治秩序를 支配하기 시작했다는 国際潮流를 감안한다면 「유엔監視下의 南北総選挙」라는 統韓政策도 転換돼야할 段階에 와있다고 볼수있다. 이런점에서 統一政策의 伸縮性이 問題点으로 지적되는것이다.

6.23 宣言과 大韓民国의 唯一 合法性과의 相衝如否이다.

6.23 宣言은 결코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分明히 하고있기는하지만 現実的으로는 6.23 宣言이 大韓民国의 正統性을 부인한것이 아니냐는 疑問에 대한 説得力있는 解明이 緊要하다하겠다.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지 않는다는것이 基本方針이니까 6.23 宣言

이 大韓民国의 唯一合法性과는 相衝되지않는다는 한마디의 解明으로는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說明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觀念的이고 抽象的인 弘報內容은 対內弘報에서 国民들의 共鳴을 얻기가 어렵다는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4) 弘報対象階層에 대한 正確한 分析이 돼 있지않다.

지금까지의 弘報는 全体国民을 同一한 対象으로 한 劃一的인 것이어서 弘報効果의 極大化를 期하지 못했으리라고 判断된다. 具体的으로는 ① 戰爭経驗이 있는 世代와 戰爭経驗이 없는 젊은 世代間의 区別 ② 知識人과 非知識間의 区別 ③ 軍人과 一般民間人間의 区別 ④ 農民과 労動者間의 区別 ⑤ 学生과 非学生間의 区別등 対象을 階層別로 나누어 그 階層에 어필할수있는 弘報內容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5) 統一弘報는 総力弘報이다.

따라서 政府의 各 部処別 諸般政策도 統一弘報의 側面에서 다시 再整理하여 統一로 向하는 長期的이고 総合的인 政策으로 이를 解釈 弘報하는 弘報內容의 拡充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6) 北韓共産主義의 実体와 그들이 內外에서 벌이고있는 行態를 分析하여 弘報에 活用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北韓共産主義에 대한 対內弘報에서 一定한 線을 設定해놓고 타부視해온 政策을 再考하여 相当한 伸縮性을 보여야할때가 온것같다.

時代的인 変遷 特히 対話, 交流時代로 접어든 南北関係에 敏感하

게 適応하면서 그들의 現在의 行態를 実相 그대로 꾸준히 体系的으로 紹介, 批判하는데 力点을 두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例를 들면 지금까지 北韓의 独裁体制와 南侵野慾을 선전하는데 重点을 두어 政治, 外交, 軍事分野에서만 一部를 批判対象으로 偏重했던것을 経済, 社会, 文化등 모든 分野에까지 拡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7) 北韓의 対南宣伝의 虚構性을 逆利用하는것은 弘報効果面에서 큰 比重을 차지할것으로 본다,

그들의 対南宣伝은 거의 모두 우리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納得이 가지않는 歪曲과 억지로 가득차 있는것이다.

이를 逆利用할경우 그 反射効果는 더욱 클것이다. 그러나 逆利用은 거의 하지않고 있는 実情이다.

ii. 弘報事業의 惰性化

弘報事業은 弘報行政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過程이다. 따라서 弘報事業은 国民들에게 어필할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의 関係部処나 民間의 統一問題関係機関이 벌리는 弘報事業은 거의가 年例行使처럼 展開되고있어 弘報対象의 深層部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라고 하겠다.

대표적인 弘報事業을 보면 地方巡廻 講演, 세미나, 웅변대회, 反共有功者표창, 反共展示会, 新聞, 라디오, TV등의 마스메디어 活用, 弘報冊子配布, 記念行事등 거의 틀에 박힌 事業들이다.

弘報事業에서의 몇가지 문제점을 指摘해보면

(1) 弘報事業을 執行하는 担当者들이 어느程度의 信念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弘報担当者들이 過然 信念을 갖고 事業을 展開하느냐 아니면 俸給의 代価로 일을 한다는 平凡한 샐러리맨的인 思考方式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効果에 큰 차이가 있게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信念의 不足感을 느낄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2) 事業의 執行結果에 대한 評価가 전혀 없다. 모든 事業에서와 같이 弘報事業도 効果面을 重要視해야 하는데 事業執行으로 모든것을 끝내는 惰性이 있다.

弘報事業을 執行하고난뒤 그 効果를 測定하여 다음 事業에 이를 参考하지 않는다면 予算의 浪費밖에 얻는것이 없을것이다.

弘報資料도 配布만으로 그치고 있다.

弘報資料를 配布하고나면 弘報対象이 되고 있는 国民들이 어떤 反応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3) 中央放送이 막대한 予算을 運用하면서도 統一弘報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唯一한 反共企劃物이 一週에 한번 月曜日저녁에 放映되는 実話劇 場정도이다.

이것마저도 시청자들에게 実感을 주지못하고 있는것 같다.

(4) 다른 事業은 勿論 마스메디어를 利用해서까지도 弘報事業効果가 미치지않는 山間.벽地에 까지 침투하기위해서는 有線放送, 壁新聞 등을 積極的으로 活用할 必要가 있는데 이러한 事業까지 손이 제

대로 미치지 못하는것 같다.

iii. 弘報媒体에 대한 不信風潮

弘報内容이나 方法이 아무리 妥当性이 있고 훌륭하다하드라도 弘報内容을 伝達하는 弘報媒体를 不信한다고 할때 弘報効果는 期待하기 어려운것이다.

新聞이나 放送등의 마스메디아가 弘報事業面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절대적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인 比重과 큰 影響을 갖는 마스메디아도 그 自体가 不信을 받는다면 弘報媒体로서의 機能을 喪失했다고 봐야 할것이다.

平素 自己周辺에서 일어나는 事件뉴스들을 自己집에서 보고 듣는 新聞이나 放送에서 蒐集할수없고 오히려 이웃나라인 日本의 新聞, 放送, 雜誌와 그밖의 外国通信 심지어는 平壤放送을 통해서 알수있었다고 할때 国内弘報媒体에 대한 国民들의 失望과 不信은 予想外로 클것이다. 뿐만아니라 弘報媒体가 전하는 모든 弘報内容을 믿을수 없다고하는 可恐할 事態까지도 誘発할 可能性이 있다. 例를들면 全大中氏事件이나 学園데모 事態에 관한 뉴스가 日本新聞이나 外信에 大書特筆되고 있는데 国内新聞에서는 이를 報道하지않아 国民들은 이에대한 뉴스를 外信에 依存했던것이다.

만일 이러한 事態가 계속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国内弘報媒体를 通한 統一弘報内容마저도 믿으려하지않는 不信風潮가 팽배하게 번져 장차에는 다른나라의 左傾的인 마스메디아에까지 뉴스를 依存하는 最悪의 事態까지도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統一弘報에 있어 마스메디아의 公信力 回得은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할 課題이다.

Ⅲ. 統一弘報의 展開方案

1. 基本目標 및 方向

民族의 여망인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成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現実을 바탕으로한 国際趨勢에 積極的으로 對処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는 論理를 広範囲한 国民階層에서 完璧하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統一弘報의 基本目標인 同時에 그 方向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바로 韓国의 統一外交政策일 뿐 아니라 對共産圏政策을 劃期的으로 転換한 歷史的 里程標라고 할 수 있는 6.23宣言으로 集約될 수 있다.

따라서 對内統一弘報는 6.23宣言을 基本으로 平和統一로 接近하는 政府의 基本政策의 合理性 및 当為에 대한 弘報와 또 平和統一의 基盤造成策으로 国力의 培養과 組織化의 必然性을 弘報하는데 重点을 두어야 할 것이다.

6.23宣言의 核心인 平和統一政策은 결코 客観的 与件変化에 대한 単純한 順応이 아니라 우리의 自主的 判断에 의한 能動的 環境適応으로서 提示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두개의 韓国」을 인정하려는 国際的인 추세에 便乗하려는 北韓側의 움직임이라든지 平和共存, 緊張緩和, 現状維持를

追求하는 国際潮流에 對処하는데 그치지 않고 現実的인 祖国統一의 実現에 接近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主体的인 자세를 内外에 闡明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観点에서 考察할때 對内弘報의 基本目標와 方向은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려는 努力이 民族的 宿願인 平和的統一과 어떻게 附合되며 또 어떠한 論理的 一貫性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説得力있게 펴나가는데 있다하겠다.

緊張緩和속의 相互開放促進이라는 6.23宣言의 精神이야 말로 가장 現実的인 統一接近의 길이며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에 寄与하는 努力이라고 할수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1950年 北韓側의 南侵으로 因한 6.25動乱의 再版과 같은 戰争危険의 배태라든가 北韓측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른바 「四大軍事 路線」 「五大綱領」등은 統一을 指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逆行하는 것이다.

冷戰時代가 끝나고 現状維持를 基調로하는 列強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하려는 새로운 国際潮流와 国土統一이 短時日안에 成就되기 어렵다는 与件을 背景으로 하고있는 6.23平和統一政策이 발표 됐을 때 北韓에서도 같은날 이에 對応하는 「五大綱領」을 발표, 熾烈한 平和外交攻勢를 벌림으로서 그들의 不利한 立場을 만회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였다.

北韓의 이러한 선전적인 平和外交攻勢는 우리의 国論을 분열시키고 混乱을 造成하여 終局的으로는 暴力에 의한 共産主義方式의 政

治革命을 企図하는 赤化統一의 妄想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立證하는 것이다.

이러한 妄想은 金英柱(南北調節委員会 평양측 委員長이며 労動党組織指導部長)의 8.28声明으로 表現되어 全民族의 여망인 南北對話를 中断케 하는 事態까지 빚어냈다.

勿論 北韓측이 南北對話를 처음부터 赤化統一의 한 方便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않된다. 때문에 北韓측은 南北對話의 初期부터 実行不可能한 問題들을 先決條件으로 내세워 對話의 進展을 방해했다. 分断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主義的 요청인 離散家族 찾기를 다루는 南北赤十字会議에서 北韓측은 議題一項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의 実践方案과 節次에 관한 토의를 하면서 議題와는 距離가 먼 「法律的 社会的條件 및 環境改善」의 先行을 내세워 反共法과 国際保安法의 폐기등 内政干渉的인 主張을 되풀이 해왔다

南北調節委員会에서도 우리측이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解消하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国統一을 促進시킨다」는 設立趣旨에 立却, 人道的 非政治的 分野 即 経済, 社会, 文化部門의 交流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拡大해 나가자는 段階的인 交流方案을 提示한데 反해 北韓측은 軍備縮少, 兵力減縮, 軍装備導入中止, 美軍撤収, 平和協定의 締結등 軍事問題의 先決을 要求. 이것을 먼저 解決하지 않는 限 다른 問題의 討議에 응할 수 없다는 態度를 取해 왔다.

이는 韓国의 安保態勢를 無力化 하려는 試図로 그들이 南北会談을 赤化統一에 利用할려는 明白한 底意를 그대로 立証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南北對話의 形態로 「大民族会議」니 「南北政治協商」같은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統一戦線」戦術의 表現으로서 南北對話에 많은 階層 即 各政党 社会団体 代表들을 망라하므로서 混乱과 相互不信을 助長하려는데 그 意図가 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南北對話에서 그들만이 統一을 願하고 또 主導하는 것 처럼 꾸며서 선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韓国大使館이 있는 나라에 北韓大使館을 競合的으로 設置하므로서 国際的인 추세인 「두개의 韓国」論에 재빨리 便乘, 分断状態를 事実上 固定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 대표적인 例가 지난 73年 5月 韓国이 이미 加入하고 있는 WHO (世界保健機構)에의 加入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은 이른 바 「五大綱領」平和統一方案을 提示, 6.23宣言이 마치 分断을 永久化 할려는 것인양 歪曲, 中傷的인 선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北韓의 宣伝攻勢과 平和共存이라는 새로운 国際潮流에 대처한 우리의 對內弘報方向은 ① 對內弘報의 基本目標가 되는 6.23平和統一政策의 妥当性과 合理性의 説得, ② 총국적으로는 赤化統一을 指向하고 있는 北韓의 偽装平和攻勢에 대한 對応弘報 展開 ③ 對內体制의 整備強化에 두어야 할 것이다.

對応弘報 展開方案과 對內体制 문제에 대해서는 後述하는 弘報內

容등에서 상세히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6.23宣言의 妥当性과 合理性을 項目別로 分析해 본다.

第一項 「祖国의 平和的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課題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 이는 우리民族의 줄기찬 統一에의 意志를 밝힌것이다.

韓半島의 分断은 두차례의 世界大戰을 일으켰다가 敗戰한 独逸의 分断과는 判異하며 再統合에 대해서는 独逸과는 달리 周辺国家나 強大国들에게 威脅의 要因이되지 않는다는 有利한 立場에 있다.

따라서 오랜 歷史를 통해 単一民族, 単一国家를 形成해 온 韓半島의再統合은 不條理를 是正하는 当為性으로 간주될 수 있다.

第二項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 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内政에 干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相互間의 内政不干渉, 不侵略이 平和統一의 大前提임을 강조한 것이다.

北韓은 自主的인 平和統一論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路線을 은폐하기 위한 方便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6.25 動乱과 같은 侵略의 可能性을 警告 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韓측이 南北對話過程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内政干渉的인 主張이나 武力行使를 예상케 하는 暗示는 統一의 展望을 흐리게하는 要因임을 지적한 것이다.

第三項 「우리는 南北共同声明의 精神에 立却한 南北對話의 具体的 成果를 위하여 誠実과 忍耐로서 계속 努力한다.」

근 2年동안이나 계속돼온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한 北韓측의 8.28宣言 같은 것을 充分히 予測한 우리의 決意表明이라 하겠다.

北韓측은 離散家族의 再結合등 人道主義的인 문제를 論議하려는 赤十字会談에서 「法律的, 社会的 障碍의 除去」라는 內政干涉的인 要求를 되풀이 하는가 하면 南北調節委에서는 段階的인 相互交流拡大라는 서울측 提案을 反對하고 韓国의 安保態勢를 弱化하려는 非現実的인 主張을 되풀이 하다가 마침내 8.28宣言을 발표하여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中斷 시켜 버렸다. 이러한 相對와의 對話를 계속하는데는 誠意와 忍耐밖에는 다른 方法이 없는것이다.

南北對話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애로를 뚫고 民族의 여망과 국제여론의 기대를 저버리서는 안된다는 것이 韓国政府의 立場이다.

第四項 「우리는 緊張緩和와 国際協助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国際機構에 參与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和解와 協商을 追求하는 国際潮流에 副応하는 同時에 北韓으로 하여금 閉鎖社会를 開放토록 하는데 있다. 이는 平和統一이라는 궁극적인 目標를 指向하는데 있어서의 한 過程이며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알아야 한다.

南北對話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꿈꾸는 北韓으로 하여금 国際舞台에 끌어냄으로서 緊張을 緩和하고 侵略을 예방하자는데 그 意義가 있다 하겠다.

第五項 「UN의 多數会員国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碍가 되지않는

다는 前提아래 우리는 北韓과 함께 UN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UN加入前 이라도 大韓民国代表가 參席하는 UN会議에서의 「韓国問題討議에 北韓측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이 項目은 UN에도 適用해 왔던 對北韓封鎖政策을 開放하는 方向으로 転換시켰음을 뜻하는 것으로 6.23宣言의 가장 核心的인 部分이다.

韓国은 1948年 政府수립후 UN総会決議의 뒷받침을 받아 唯一正統性을 堅持해 왔었다. 그러나 国際情勢의 変化와 UN의 普遍性原則을 감안하여 이같은 政策転換을 取하게 된 것이다.

北韓측은 이러한 우리측의 宣言에 대해 同時招請에는 応하지만 同時加入에는 反對한다는 立場을 취하면서 韓国측이 分断의 永久化를 劃策하고 있다는 攻勢로 나오고 있다. 이는 UN을 宣伝舞台로는 活用하지만 UN加入에 따른 平和維持 義務는 지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海外에서는 東, 西独이 상호간에 分断承認을 거쳐 비로소 UN에 同時加入 申請을 냈다는 事実로부터 類推하여 韓国도 「두개의 韓国」을 받아 들인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으나 韓国은 同時加入이 곧 北韓에 대한 国家承認을 意味하지는 않는다는 主体的 立場을 分明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国際法 解釈上의 問題提起이기에 앞서 民族的인 統一意志의 闡明으로 봐야 할 것이다.

第六項 「大韓民国은 互恵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国家에 門戸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体制를 달리하는 国家들도 우리에게

門戸를 開放할 것을 促求 한다」

北韓을 支持, 支援하고 있는 소련, 中共을 비롯한 共産 국가들과의 相互門戸開放에 의한 關係改善을 促求한 劃期的인 政策転換이라고 하겠다 6.23宣言이 발표된 직후의 공산권 国家들의 反応은 極히 消極的이고 미묘한 것이었으나 동구권국가들이 非政治的 目的의 韓国人에게 入国을 許可하기 시작했고 中共도 UN에서의 韓国問題 処理過程에서 對韓国關係에 相当한 伸縮性을 보인 징조가 엿보여 우리의 相互門戸開放政策은 時宜에 맞는것이라고 하겠으며 北韓에 대해서도 主導的인 立場에 서게 되었다.

소련과 中共은 각기 美国과 日本을 상대로 協商할때 이 문제가 어느程度의 比重을 차지하는가를 測定할 것이 틀림없다. 이럴경우 우리는 友邦들에 대해 相互主義, 均衡外交를 強調하야 할 立場이다.

即 共産主義国家들이 韓国을 承認하기 前에 자유권국가들이 北韓을 먼저 承認한다는 것은 外交的으로 衡平의 原則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다.

平和를 위해 均衡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軍事 뿐 아니라 外交關係에서도 고려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第七項 「大韓民国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關係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나는 以上에서 밝힌 政策中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期間中의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해 둔다.」

대공산권개방정책이 友邦国들의 外交的 負担을 経減시킬려는 것이며 自由友邦들과의 既存紐帯関係에 금이 가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특히 看過해서는 않될것은 對北韓関係에 관한 但書이다. 그것은 北韓을 결코 国家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UN에의 同時加入이나, 国際機構에의 共同参与는 統一에 이르기 까지의 暫定措置임을 分明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2. 弘報内容

1. 統一政策

北韓과 공산권에 대한 종전의 「封鎖」政策에서 앞으로 「開放」政策으로 飛躍的인 転換을 표방한 박정희대통령의 6.23 平和統一外交特別宣言은 韓国의 自主的 平和統一政策의 内容을 가장 発展展的으로 集約한 統一政策弘報의 基本目標이다. 여기서는 이 基本目標를 효과적으로 達成하기 위한 對内弘報内容을 構想해 보기로 한다.

효과적인 對内弘報内容은 韓国의 平和統一政策 内容과 對照的으로 對立된 北韓의 統一政策 内容을 比較分析 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統一政策 内容은 박정희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이 발표된 지난 6月 23日 하오 8시 평양에 온 「후사크」체코共産党 総秘書 歓迎大会에서 金日成 演説 중 이른

바 「5大綱領」 平和統一方案으로 集約된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 「5大綱領」의 主要 骨子는 「南北聯邦制」와 「大民族会議」의 提議로 특징 지워진다.

이것을 韓国의 平和統一政策과 對比해 보면, 南北聯邦制는 平和統一政策의 「南北韓 UN同時加入」과, 大民族会議는 「점진적인 南北對話와 交流」와 서로 배치된다.

따라서 北韓의 南北聯邦制와 大民族会議의 虛構性은 상대적으로 韓国의 南北韓 UN同時加入과 점진적인 南北對話와 交流가 현실적인 正当性을 說得시키는 要因으로 볼 수 있는것이다.

(1) 南北聯邦制의 虛構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統一指向的인 것이냐 혹은 分断固定化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냐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北韓의 主張은 本質的 또는 理論的으로 統一指向的이면서 現実的으로는 平和指向的인 두가지 對立되는 兩極을 다같이 反映하는 매우 伸縮性있는 可変 戰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戰略은 對南革命의 情勢가 有利하다고 판단되면 對南赤化를 위한 革命的 立場을 취하고, 반대로 對南革命戰略이 難關에 부딛쳐 그 実現性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南北의 平和關係를 維持하고 自己体制를 保全하려는 現実的 立場을 취할 수도 있는것이다.

1972年 11月 16日 평양방송은 南北聯邦制의 性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南北聯邦制는 씨아립主義와 같이 條約에 의한 国家의 단순한 결합으로 加入国들이 동의한 사항에 관해서만 統制가 가능한 国家聯合과는 本質的으로 相異하며 또한 미국과 스위스, 카나다의 聯邦과도 相異하다. 오랜 歷史를 거쳐온 한 民族, 한 国家안에서 外来侵略자에 의한 民族分裂과 国土兩断을 끝장내고 祖国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過渡的 措置이다.

独立的 中央政府가 없는 조건에서 統一的인 国家施策은 못하나 合意에 이른 問題를 共同으로 해결하며, 광범한 接触과 對話의 実現 및 諸般交流를 원활하게 実現할 수 있게 함으로써 統一的인 発展을 보장할 수 있다.」

北韓의 이와같은 南北聯邦制 発想은 分断된 韓半島에 두개의 主権국가가 存在하고 있다는 認定이 한 側面이며 다른 한 側面은 統一国家를 指向하기 위한 措置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물론 여기서 北韓이 노리는 統一指向的 側面은 民族 공통의 염원을 기초로한 統一韓国의 実現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共産化 統一을 絶對的 課題로 하고있는 北韓은 南北聯邦制案을 소위 그들의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提起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統一指向的이란 側面의 全部이다.

北韓이 南北聯邦制를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提案한 그들 나름 이유로서는 다음 세가지 觀測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다.

① 統一의 基本障碍인 美軍을 온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해

徹收케 할 与件을 만들며, 統一問題 해결에 대한 美国의 干涉을 排除하도록 하는 現実的 방도가 필요 하며,

② 思想, 理念, 制度가 相反된 南北의 現実은 多方面的인 交流에 있어 그 制限性이 불가피하므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外交面의 民族的 연계를 보다 증진할 수 있는 方途, 즉 完全合作이 필요 하며,

③ 이상의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過渡的 措置(南北聯邦制)를 실시하는 過程에 外勢의 干涉없는 南北総選挙를 통한 統一政府를 수립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北韓은 南北聯邦制에 「高麗聯邦共和国」이란 国号를 붙혀 그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로 UN에 加入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전혀 다른 価値体系를 가진 두 개의 異質社会로 발전한 오늘의 南北韓 관계에서, 비록 単一民族으로서의 유구한 歷史와 言語 및 文化의 共通性등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하더라도 異質的 要素로 말미암은 分裂의 深層은 그대로 현실이기 때문에 統合이나 統一은 단순한 数学的 観念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北韓의 単一国号 UN加入 제안의 聯邦制는 보다 戦略的 活用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底意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駐韓 美軍 徹収를 비롯한 韓美 共同防衛 및 協力關係를 弱化化 내지 断絶시키려는 것이다.

② 南韓의 광범한 階層 내지 政治勢力과 이른바 統一戦線을 形

成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南北当局間의 双務的 接触과 아울러 多務的(多辺的)接触을 併進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南韓의 광범한 大衆을 「高麗라는 国号로 感傷的 刺戟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③ 韓国의 反共体制 즉 共産主義의 침투를 막는 法的 및 政策的 社会的 規制와 국민의 反共意識을 깨뜨리기 위해: 韓国 국민의 北韓観을 改善하려는 것이다.

④ 韓国安全保障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国軍의 對共意識을 弱化 시킴으로써 소극적으로는 北韓安保에 대한 威脅要因을 제거하며 적극적으로는 国軍의 一部를 「革命」의 편에 끌어 들인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軍事的 手段에 의한 赤化統一의 機会를 포착하려는 것이다.

⑤ 「高麗」라는 이름의 南北聯邦制가 革命의 「決定的 時期」 造成에 有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⑥ 国際的인 現状固定化 추세에 被動的 입장을 취하면서 南北分断 永久化 책임을 전가하려는 底意이다.

⑦ 「高麗」란 国号는 해방직후 北韓의 民族系 人士들이 거론한 바 있으므로 北韓 住民들의 教養과 結束에 有利하기 때문이다.

⑧ 母国 사정에 어두운 海外교포에 대한 침투공작에 利用할 수 있다.

北韓의 「高麗聯邦共和国」이란 이름의 南北聯邦制가 드러낸 虛構를 對內的으로 어떻게 弘報해야 하는가? 그 不当性을 다음 다섯 가지 觀点에서 지적할 수 있다.

① 聯邦国家의 理念的 基礎가 없는 주장이다.

聯邦의 第一要件은 聯邦形成의 理念的 基礎에 관한 同意이다. 北韓의 聯邦制는 무엇을 理念的 求心点으로 하여 聯邦国家를 形成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言及이 없다. 이 점은 北韓의 南北聯邦制가 가진 致命的 약점으로 終局的으로 赤化統一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民族的 平和統一路線과는 위배되며 부당하다.

② 「두개의 한국」을 先行하여 赤化統一에 봉사 하고 있다.

北韓의 統一戰略이 가진 특징은 「두개의 한국」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朝鮮」을 達成하려는 데 있다. 北韓의 聯邦制는 그들의 定式化된 赤化統一戰略에 奉仕하며 服從하고 있다. 만일 南과 北이 각각 UN에 加入하게되면 聯邦国家의 政治的 울타리 안에서 北의 영향력으로 南韓 赤化를 수행하는 길이 방해를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平和統一外交가 指向하는 南北의 UN同時加入을 반대하고 聯邦制에 의한 하나의 국가로서의 加入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赤化統一에 봉사하는 高麗聯邦共和国으로서의 UN加入은 우리의 民族的 平和統一路線과는 위배되며 不当하다.

③ 現実的 与件을 考慮하지 않고 있다. 国号만으로 聯邦이 可能한 것이 아니다. 聯邦을 形成할 수 있는 理念도 있어야 하거니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聯邦을 可能케 할 수 있는

現実的 与件이다. 솔직히 말하여 오늘의 南北韓關係에서 그와같은 聯邦制가 可能 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四半世記 이상 断絶을 통하여 敵對 關係를 持続해온 異質体制의 두 社会가 그동안의 不信과 敵對感情을 그대로 안고 聯邦国家를 形成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보다도 더 무서운 不信과 對立關係에 빠지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制 実施에 앞서 누적된 不信과 誤解가 풀어져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双方間에 새로운 理解와 信義를 회복하는 것이 先次的 問題가 된다. 이것을 度外視하고 一躍 聯邦制로 誘導하려는 現実을 無視한 北韓의 허망한 처사는 南北韓의 두 体制 사이에 쌓인 不信과 誤解를 解消하고 信義와 和解를 창조하여 単一民族 国家를 실현하자는 우리의 民族的이며 現実的이고 平和的인 統一路線과는 위배된다.

④ 冷戦用의 낡은 思考方式의 宣伝物에 不過하다.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은 원래 4.19 직후 韓国의 国論分裂의 危機와 와 社会混乱을 이용하여 南北間의 對等한 지위를 獲得하려던 冷戦用 宣伝物로서 첫 선을 보였었다. 만일 1960年代末에 南侵可能한 与件이 무르익었다면 北韓은 南北聯邦制 宣伝으로 南北間의 一對一關係를 얻고자 했을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軍事的 征服手段을 発動했을 것이다.

「高麗聯邦共和国」 국호 역시 基本動機에 있어서는 4.19 직후의 그것과 마찬가지며 다만 戦術的 次元의 格調만을 높이고 있을뿐이다. 우선 南北對話를 진보시켜서 점차 交流를 拡大하자는 우리

의 平和統一政策은 政治的 妥当性을 전제로한 現実的 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對話도 제대로 잘 안되는 状況에서 聯邦制부터 실시하자, 이름이 좋으니 「高麗聯邦共和国」으로 하자는 식의 即興的 提議를 어떻게 政治的 妥当性 있는 提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⑤ 南北對話에서 聯邦制를 利用함으로써 결국 統一을 향한 對話의 進展에 障碍를 造成할 것이다.

統一問題, 南北諸政党 社会団体間의 協商問題, 多方面的인 南北交流問題, 軍事 및 外交問題의 協議와 그 実現이라고 볼 수 있는 南北調節委員会의 機能은 北韓이 提示하고 있는 南北聯邦制의 機能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会가 그와같은 機能을 발휘 하더라도 北韓이 말하는 聯邦制와는 두가지 差異를 가진다. 하나는 形態上, 南北聯邦制가 두 政府의 公式代表들로 最高民族会議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대하여, 南北調節委員会는 두 政府間의 公式的機構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南北關係의 与件으로 보아, 調節委는 어디까지나 南北間의 對決을 解消하고 合作과 団結을 指向하는 与件造成에 불과하지만, 聯邦制는 韓国이 伝伝統的인 反共政策과 對北警戒 내지 競争意識을 버리는 정도로 劃期的인 措置를 期待할 수 있는 새로운 南北關係를 의미하는 것

으로 北韓은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調節委를 통한 南北對話로서는 北韓이 바라는 聯邦制実施의 与件造成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調節委 제2차 会議에서 双方提案의 對立으로 드러났다.

우리측은 상호 마찰이 적은 経済, 社会, 文化交流를 먼저 실시하고 제안한 데 대해 北韓측은 軍事問題를 우선 해결하자는 先決條件을 제안한 것이다.

결국 北韓은 調節委를 통한 南北對話를 그들의 赤化統一戦略의 一環인 南北聯邦制로 가는 方略으로 利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平和的인 民族統一課業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方法은 聯邦制를 통한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交流方式을 따라야 한다.

(2) 大民族会議의 虛構

北韓이 제의한 「大民族会議」는 『北半部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兵士들과 南朝鮮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知識人, 軍事, 民族資本家, 小資産階級과 같은 北과 南의 각계각층 人民들과 각 政党, 社会団体 등의 大民族会議를 소집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광범히 協議하여 解決』하는 方法을 말한다.

이것은 ① 박정희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 따른 對内外의 肯定的 反応 ② 南北調節委員会를 통한 南北對話가 北韓측이 기대한 대로 進展되지 않고 있다는 状況 ③ 韓国내부의

反共 기반이 너무 공고한데다 共産主義者를 상대한 對話가 어렵다고 하는 韓国국민의 与論을 看破하고 있으므로 民族感情에 보다 迎合하는 提議로서 相對側을 교란해야할 狀況등을 背景으로 추진된 것으로 觀測된다.

北韓은 從来의 政治協商会議를 変形시킨 大民族会議를 提議하여 現行 南北對話의 「채널」을 度外視하고 있는데, 과연 戰略的 底意는 무엇인가?

① 南北調節委員会를 無力化하고 多務的 接触으로 對南革命의 与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몇차례 거듭된 南北調節委員会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念願이 무엇인지 看破했으므로 調節委와 같은 双務的 對話通路로서 그들이 의도했던 對南革命의 与件을 造成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다.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破壞할 수는 없지만 이미 無用한 道具로 판명된 調節委에 더 이상 執着할 필요가 없으므로 別途의 多務的 接触機構를 마련하여 韓国政府를 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② 統一戰線 戰術의 一環이다. 北韓은 統一戰線을 政党, 社会団体의 指導層과 이루어지는 「上層統一戰線」과 각계각층의 大衆과

이루어지는 「下層統一戰線」으로 区分하고 下層統一戰線을 基本으로 하면서 이를 토대로 上層統一戰線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民族的 団結을 앞세운 政治 「合作」을 노린 것이다. 北韓은 南北關係가 競爭과 對決이 아니라 合作과 団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南北政党. 社会団体 및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協商会議 즉 大民族会議를 제의한 妥当性을 여기서 찾고 있다.

④ 韓国의 国論分裂을 助長하려는 것이다. 南北共同声明이 발표되자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한때 들뜬 感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南北接触을 통하여 점차 北韓의 底意가 드러나자 冷静을 되찾았다.

⑤ 6.23 宣言과 UN對策을 겨냥한 海外宣伝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駐韓外国軍 徹収를 비롯한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韓国政府의 立場이고 韓国国民과 民族은 그렇지 않으니 北韓側은 大民族会議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国際与論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⑥ 北韓住民들의 統制를 위한 政治求心点을 造作함에 있다. 南北共同声明이 발표되자 이 声明이 자기들 原則대로 만들어 졌고 따라서 統一도 자기들이 뜻하는 방향으로 成熟되어 가고 있다는 캠페인을 벌여 金日成体制를 強化하고 있다. 이 大民族会議의 虛構性을 어떻게 說得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 네가지 분명한 不当性을 지적할 수 있다.

① 7·4南北共同声明의 위반이다.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성취하자는 7·4南北共同声明에 서명하고 南北調節委를 발족시켜 南北對話를 시작한지 1년도 못되어 調節委와는 別途로 南北對話의 協議体를 또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선 政治的 妥当性이 없다. 北韓은 韓国政府의 名分外交를 파괴하는 데만 注力하고 對話에서 民族念願을 충족시키는 데는 무성의 하며 또 故意로 對話를 停滯로 몰아 넣고나서 이젠 南北当局者들 사이의 對話를 그만두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새로운 對話機構를 만들자는 식으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않고 있다.

② 平和統一의 抛棄이다.

現在 진행중인 南北對話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南北 政党 社会団体의 会議나 혹은 個別人士間의 對話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調節委 밖에서 民族会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合理的인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特有의 「闘争의 方法」으로 그들의 一方的인 政治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③ 對話는 커녕 舌戦場 役割밖에 못된다. 南北間에 統一의 価値観과 思想 및 政治的 견해가 다르고, 또한 生活방식 思考방식마저 本質的 差異를 보이고 있는 環境에서 이를 調整하기 위한 노력도 마치기전에 政党, 社会団体와 각계각층 人士들을 한데 묶으자는 주장은 새로운 舌戦場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④ 北韓이 주장하는 全民族的 団合論理에도 矛盾된다. 北韓은 南韓측 對象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주자본가, 소자산계급, 각 정당, 사회단체만을 포함시키고 그들이 타도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는 所謂「買辦자본가」「反動官僚」등으로 부르는 韓国의 執権層이나 지도계층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전민족을 団合시킨다는 그들 자신의 論理와도 맞지않는다.

ii) 対内体制

韓国「体制」의 優位性은 全体的 国家的 次元에서의 接近보다는 弘報 聴衆의 個人生活 次元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自由民主主義와 国民経済成長 보다는 個人生活의 安寧과 福祉가 対内的인 聴衆에게는 훨씬 더 어필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우리 体制의 優位性을 強調하는 対内弘報内容은 政治的 側面에서 「安寧」, 経済的 側面에서 「福祉」, 社会的 側面에서 「生活」 그리고 文化的 側面에서 「感覚」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본다。

(1) 安 寧

여기서 「安寧」이란 暴力의 威脅이 없는 政治生活을 意味한다。 国家 規範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個人에게 어떤 不当한 権力의 強制가 作用하지 않는다는 保障이야말로 우리 「体制」의 政治的인 優位를 立証시킬 수 있는 端的인 表現으로 바람직하다。

全体主義 専制가 絶対로 保障할 수 없는 個人의 安寧은 우리 体制의 優越한 政治環境을 이룩하는 基本바탕이 될 수 있다。 이 바탕은 国民의 反共態度를 決定하는 基礎的인 要因인 것이다。

政治的인 安寧은 客観的으로 不安했던 韓半島의 政治情勢 속에서 個人生活을 経験한 우리 国民들에게 効果的인 説得力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民主主義」나 「革命」과 같은 이데올로기的 観念体系 보다는 훨씬 実感있는 캐치프레이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나 革命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危機意識을 내세우거나 不

安한 変革의 犠牲을 強要하기 때문에 많은 国民들을 説得시키기 어렵다。

対内体制의 政治的인 캐치프레이즈가 安寧指向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968年 大統領3選改憲 国民投票에서 客観的으로 立証된 바 있다。 当時 与党인 共和党의 口号 「安定이냐 混乱이냐」는 3選改憲을 支持하는 多数票를 만드는데 決定的으로 作用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2) 福 祉

「福祉」는 쉽게 말해서 個個人이 経済的으로 잘사는 것이다。 全体 国民経済 規模가 増大하고 基幹産業이 発展하는 것과 国民 個個人의 福祉와는 別個의 問題다。

国家経済成長面에서 北韓과 比較하여 体制의 優位를 立証하는 것은 対内 聴衆 個個人에게는 観念的인 効果 以上의 実感있는 説得力을 주지 못한다。 잘못하면 資本主義 범주에 속하는 우리 体制에서 不可避한 現象으로 말미암은 国民 大多数의 低所得層을 刺戟하는 逆効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低所得層이란 아무리 全体国民経済가 成長한다해도 絶対 所得과 関係없이 存在하는 우리体制 内部의 相対的인 概念이다。

흔히 가난은 共産主義의 温床이라고 말한다。

共産主義는 「福祉」를 威脅받는 個人을 組織하는데서 부터 出発한다는 것은 常識이다。 共産主義가 그들의 観念的 虚構를 駆使하여 大衆을 説得할때 던지는 最後의 約束도 바로 個人의 福祉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国民들은 共産主義를 通하여 個人의 福祉를 期待할 수 없다는 事実을 이미 観念的으로는 널리 認識하고 있다。

그런 国民들에게 具体的인 福祉를 맛보게 하고 그것을 説得시키는 것은 우리体制의 優位를 가장 손쉽게 빨리 認識시키는 方法이 될것이다。

例를들면 最近 「国民福祉法案」은 여기서 말하는 福祉 캐치프레이즈와는 反対目的을 드러내는 逆福祉効果를 보여주는 것이다。

国民福祉法案은 먼 将来에 個人의 福祉를 約束하는 全体国民経済의 成長을 위해 당장의 個人福祉를 犠牲해야 한다는 論理를 宣伝하고 있다。 이것은 福祉指向的 対内 聴衆에게는 説得力없는 弘報内容으로 評価된다。 차라리 率直한 国民投資 캠페인이 갖는 経済政策을 내세우는 쪽이 적어도 逆福祉効果는 없었을 것이다。

(3) 生 活

보통 『그곳엔 「生活」이 있다』는 말을 쓴다。 사람이 사는 냄새라고나 할까。 그 社会의 살아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말한다。 이 「生活」은 価値指向的이면서 同時에 価値逆指向的인 것을 抱括하는 概念이어야 한다。

밝고 明朗한 面과 同時에 어둡고 不快한 面을 다 함께 드러내는 内容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美談만이 드러나고 犯罪가 감추어진 또 意慾만이 強調되고 挫折은 숨어버린 그런 社会에서는 한마디로 「生活」을 発見하기 어렵다。

生活은 確実히 우리 体制의 社会的 側面이 갖는 훌륭한 魅力의 포인트임에 틀림없다。 우리 社会가 보여주는 실로 多様한 生活의 赤裸裸한 모습들이야말로 劃一的인 全体主義 体制에서 創造될 수 없는 人間 喜怒哀楽의 파노라마인 것이다。

섹스, 慈善, 詐欺, 倹約, 술, 奉仕, 売春, 教育, 窃盗, 人情, 도박, 스포츠, 殺人, 成功, 自殺, 宗教……生活의 多様한 展開를 그대로 맛보게 하는 것은 生活을 사랑하는 対内聴衆들을 効果的으로 説得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生活의 表現은 固定観念으로부터 脱皮된 것이라야 한다。

伝統的인 道徳規範과 같은 것은 때로는 生活을 抑制하고 体制를 失望시키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

또 外来風潮에 対한 지나친 意識은 没生活指向的 結果를 가져오기도 한다。

外来語 使用에 関한 意識的인 民族的 固執은 言語生活의 没生活指向的 콤플렉스를 키워주는 代表的 例인 것이다。 外来語를 그대로 단 한마디도 直輸入하지않는 中国語와는 対照的으로 外来語를 거의 無制限 使用하는 日本語와 같은 境遇도 얼마든지 있다。

漢字의 造語力은 中国語를 民族的 固執이 강한 言語로 만들었지만 造語力이 弱한 우리말은 外来語를 無制限 받아들여 빨리 土着化시키는 日本語 方式으로 言語生活을 豊富하게 発展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国語醇化運動 따위는 北韓 金日成의 所謂「民族語」운동보다 얼마나 더 没生活指向的인 作業인가。

(4) 感 覚

現代의 文化的 特徵은 「感覚」에 있다고 한다。 우리 体制의 文化的 側面에서도 感覚은 그 特徵的 要素로서 浮刻되어 漸次 굳어져 가고 있다。

新聞보다는 텔레비전이, 文芸作品보다는 娯楽映画가, 클라식보다는 폽송이, 教養誌보다는 週刊誌가, 具象画보다는 抽象画가, 演劇보다는 放送劇이 더 大衆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같은 対称概念의 前者들이 思考指向的인 文化였다면 確実히 後者들은 感覚指向的 文化라고 하겠다。 우리 体制의 文化的 特徵을 感覚指向으로 把握할때 効果的인 対内弘報内容의 文化的 側面은 感覚을 모토로 構想되어야 할것이다。

感覚文化가 思考文化에 比하여 보다 発展的인 優位로 評価되는 것은 現代社会에서 普遍的이며 世界的인 傾向이며 우리만이 그것을 否定할 必要는 없다。 또 時俗말로 世界속의 韓国에 도도하게 밀려오는 感覚文化의 물결을 아무리 頑冥한 固執으로 버틴다해도 그 거센 흐름을 逆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北韓体制는 그 文化的 側面에서 感覚文化를 観念的으로 排撃하는 文化反動的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体制의 感覚指向은 단연 文化的 側面에서의 体制優位를 誇示할 수 있는 有利한 高地인 것이다。

南北을 莫論하고 韓半島의 現代文化가 안고 있는 固疾的 矛盾은 植民地 価値基準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오페라는 芸術이고 텔레비

전 쇼는 娛楽이라는 생각, 純粋文学과 大衆文学의 区別, 観客없는 演劇運動과 商業텔레비전 드라마… 도대체 品位와 低俗을 区別하는 基準이 그런 形式의 故郷인 西欧의 지나간 時代 価値観에 左右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文化的 植民地의 価値観 克服問題는 韓半島의 경우 두가지 方向으로 解決을 指向하고 있다。 하나는 固有文化 伝統文化에 대한 異常執着이요, 다른 하나는 大衆性向의 感覚文化로 発展하는 길이다。 여기서 植民地 価値観을 理想的으로 克服하는 길은 伝統文化에만 執着하지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感覚文化를 指向할때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伝統文化를 바탕으로 思考文化를 指向하는 北韓 体制의 文化政策의 限界를 超越할 수 있는 方法이기도 하다。 그런 点에서 感覚逆指向的인 政府의 文芸中興 프로젝트는 効果的인 弘報内容이 될 수가 없다。

iii . 北韓의 実相

北韓은 対内 聴衆들에게 公式的으로 封鎖된 거의 完全無欠한 未知의 世界로 自然스런 好奇心의 対象이 되고 있다。 이 未知의 世界는 聴衆의 個人的 立場과 好奇心의 정도에 따라 多様한 想像의 幅을 보여주는 엄청난 虚構로 発展한 것이다。 이 虚構는 南北対話를 통한 最初의 公式接触으로 漸次 実相을 드러내 보이기 始作했다해도 이제 그 첫 껍질을 벗긴 양파처럼 그야말로 氷山의 一角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北韓 体制의 虚構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虚構

를 걷어버리고 그 実相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北韓을 共産主義者들이 만든 権力体制로 把握해온 것은 지금까지의 常識이다。 共産体制는 러시아를 비롯한 世界 여러나라에 発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여러 共産 体制들은 非共産 権力体制와 区別되는 그 나름의 共通分母위에서 発達한 것이다。 지금까지 大部分의 研究者들은 이 共産 体制의 共通分母를 基礎로 北韓 体制를 어프로치하는 伝統的인 方法을 따라 北韓体制의 実相을 追求해 왔다。 그러나 이 方法은 古典的인 演繹論이 犯하기 쉬운 観念的 誤謬로 말미암아 実相 接近에 失敗하고 또 하나의 虚構를 把握하는데 그치는 수가 많다。

共産体制는 이른바 民族的 環境의 客観的 差異에 따라 원래 같은 理論的인 革命経験이라해도 나라마다 具体的인 適用経験을 重視한다는 것은 周知의 事実이다。 北韓 体制가 世界 어느 共産 体制와도 다른 金日成 唯一体制로 発展한 事実도 理論家들은 그렇게 説明한다。

実際로 北韓을 訪問한 사람들은 우선 印象的으로나마 金日成 唯一体制가 普遍的인 共産体制의 客観的 共通分母로부터 얼마나 다른 것인가 実感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共産主義 運動을 実践的으로 認識하고 있는 같은 共産主義者들의 報告에서도 이 点을 発見할 수 있다。

北韓은 한마디로 金日成 唯一体制라는 前提를 基礎로 北韓体制의 実相을 어프로치하는 方法--。 이 方法이 어느程度 지금까지 演

繹的 観念論이 造作한 北韓 体制의 虛構를 부수고 対内 聴衆의 想像의 幅을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以上과 같은 論理를 따라 金日成 唯一体制 次元에서 北韓의 実相을 드러내보여주는 対内弘報内容을 政治・経済・社会・文化的 側面에서 각각 構想해 보기로 한다。

(1) 神話的 恐怖

対内 聴衆들은 우선 北韓하면 恐怖의 캠프를 連想한다。 피의 粛清으로 連続된 나날을 어떻게 1千5百萬 同胞가 27年間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歷史的으로 보아도 恐怖의 캠프는 지극히 発悪的인 最後의 瞬間에 暫時 存在했을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継続된 例는 드물다。 聴衆들은 그들의 連想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좀처럼 北韓体制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된다。

이 納得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의 疑惑을 안은 聴衆들에게 北韓의 宣伝的 皮相的 政治現象은 새로운 虛構를 심어주기 십상이다。

問題는 金日成 唯一体制를 지탱케하는 根本的인 武器가 무엇인가에 있다。 과연 스탈린式 피의 恐怖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武器일까? 그 武器는 어떤 것인가? 이 点을 똑똑히 認識시켜주는 것이 聴衆들의 理性的인 判断을 誘導할 수 있는 合理的 説得内容인 것이다。

金日成은 이른바 「唯一・主体思想」이란 一種의 政治神話를 만들어 그것을 利用하여 自信의 카리스마틱한 指導体制를 維持한다고

볼 수 있다。 勿論 이와같은 神話的 統治를 実現할 때까지 비굴한 植民地的 屈従을 겪었고 무자비한 피의 粛清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金日成体制는 이미 낡은 武器들은 必要없는 段階인 것이다。 그가 開発한 새로운 武器는 物理的인 恐怖가 아닌 보다 高性能의 精神心理的인 恐怖를 発射하고 있다。

精神心理的인 恐怖의 분위기는 北韓을 흡사 하나의 巨大한 僧侶村을 連想케 하는 것이다。

平壌을 처음 訪問하는 사람들은 玉流橋를 건느면서 바라다보이는 古代 希臘 神殿과도 같이 雄壮한「革命史蹟 博物館」을 背景으로 우뚝 선 어마어마한 크기의 銅像이 平壌市 全体를 威圧的으로 俯瞰하고 있는 光景에 놀라게 된다。 共産主義式 口号대로라면 人民의 나라를 象徴해야할 자리에 한 個人의 銅像이 서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기는 人民의 나라가 아니라 「金日成의 나라」라는 느낌을 強要하게 만든다。

金日成 個人崇拝는 単純한 物理的 恐怖를 背景으로 했던 스탈린 崇拝와는 달리 精神心理的, 神話的 恐怖를 背景으로 한것이다。

이 神話는 그들 表現대로 唯一主体思想은 가까이 日本軍国主義의 天皇崇拝와 멀리는 李朝 封建主義의 忠君忠誠에서 類推될 수 있는 時代錯誤的인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体制는 生理的으로 現代式 開放政治에 젖은 対内 聴衆에게는 本質的으로 説得力을 갖기 어렵다。

(2) 貨幣의 意味

北韓 体制의 経済的 側面에서 資本主義 経済構造에 사는 対内 聴衆에게 가장 幻滅을 줄 수 있는 테마는 그곳 貨幣라고 생각한다。 北韓 社会에서 貨幣는 무슨 意味를 가지는가? 北韓에도 貨幣制度는 厳然히 있다。 平壌의 트롤리 버스를 탈때도 料金을 支払해야 하고, 百貨店의 쇼핑, 여름날 街頭의 「단물집」에서 사이다도 사 마셔야 한다。 経済的 欲求의 充足을 돈으로 計算하는 制度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逆으로 돈이 経済的 欲求를 創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 個人이 充足시킬 수 있는 経済的 欲求가 極度로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貨幣는 購力을 喪失하고 한낱 「割当된 쿠폰」 以上의 意味를 갖지 못한다。

北韓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割当된 欲求 以外에는 쓸데가 없다。 트롤리 버스를 継続 탈 必要도 없고, 똑같은 質의 옷감을 아무리 많이 산들 無意味하다。 더 다른 欲求의 充足은 쿠폰으로 解決할 수 있는게 아니다。 政治的, 社会的 身分이 새로운 欲求를 許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北韓体制의 貨幣経済的 側面은 우리体制式 個人 福祉를 바라는 対内 聴衆에게 전혀 魅力을 줄 수 없다。

(3) 首領과의 関係

北韓 体制에서의 社会生活은 「首領과의 関係」를 빼놓고 説明할 수 없다。 父母兄弟, 이웃, 친구, 夫婦, 師弟, 先後輩, 同僚, 上下…… 이런 式으로 多端한 人間関係로 얽혀있고 그래서 人間関

係를 소중하게 아는 対内 聴衆들에게 「首領과의 関係」는 反撥的인 嫌悪感을 刺戟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首領과의 関係는 우리 体制에 사는 사람들이 肯定的으로 維持하고 있는 모든 関係를 다 類推시키고 있다는 事実에서 嫌悪感은 보다 広範하게 波及된다。

北韓에서 태어난 아기는 首領이 마련해준 託児所에서 首領의 젖을 먹고 자란다。 아기가 처음 배우는 呼格 名詞는 「엄마」, 「아빠」 대신 「어버이首領」。 首領이 세운 人民学校에 가면 매일아침 校門에 써붙인 「金日成 원수님 고맙습니다」를 익히고 首領의 部下로 訓練받기 위해 少年団에 加入한다。 나이를 먹고 上級学校로 進学하면서 소년단을 卒業하고 社会主義労動青年同盟으로 올라 옮긴다。

性을 깨달아 恋心을 키우는 나이에 이른 女性들은 누구나 首領과의 플라토닉 러브에 빠져야 한다。 이 崇高해야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간혹 肉体的인 愛人이 생기든가 大部分 父母의 許諾을 받은 배필을 만나더라도 永遠히 간직해야하는 떳떳한 마음의 사랑인 것이다。 이때 肉体的인 배필과의 関係는 首領과의 플라토닉 러브를 위한 永遠한 「友情」이라는 二次的 関係로 밀려나야 한다。

成年이 되면 首領의 党에 들어간다。 首領의 党員이 될 수 있는 栄光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首領의 각별한 은총을 입어 選択된 엘리트에게만 許諾되는 栄光인 것이다。 엘리트들은 그에게 주어진 一生을 오직 首領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죽는 것을 最大의 栄光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北韓 体制가 만든 標準人生의 成長過程이다。 北韓体制 標準人生이 보여주는 首

領과의 関係야말로 対内 聴衆에게 魅力의 喪失点이 아닐 수 없다。

(4) 聖書, 聖詞, 聖歌劇

北韓体制의 文化的側面에서 特徴的 内容은 聖書, 聖詞, 聖歌劇으로 代表된다。 「金日成選集」, 「革命壁詞」, 「革命歌劇」이란 이름의 北韓文化들은 한마디로 金日成 神話를 呪述하고, 彫形化하고 讃頌讃美하는 聖書, 聖詞, 聖歌劇인 것이다。 平壌을 처음 訪問하는 사람들은 거리거리 広場에 彫形된 巨大한 壁詞들을 볼 수 있고, 「책방」에 들리면 한 사람의 같은 著書가 90余個国말로 出版된 単行本들을 손쉽게 얻어 볼 수 있다。 또 平壌의 大小劇場의 마티네는 모두 다섯가지 레파토리의 歌劇중 어느 한가지를 반드시 내걸어야 한다。 聖書나 聖詞나 聖歌劇이나 共通된 테마는 「首領님이 満洲 密林에서 우리를 代身하여 抗日闘争을 벌일때 겪으신 온갖 고초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日本놈들과 상전들의 圧制에서 풀려 잘살게 되었다--간단히, 首領님이 우리를 救援해 주셨다」는 信仰公式이다。 小説, 그림, 노래, 춤, 演劇 등 온갖 芸術形式은 人民들이 이 信仰公式을 익히는데 総動員되고 이렇게 익힌 公式에 따라 首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節次가 나온다。

北韓에서는 歩道를 천천히 거닐면서 「金日成選集」을 외우는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책이야말로 一点一劃도 고칠 수 없는 永遠한 바이블로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聖書의 修辞学을 除外하고 聖詞의 技法이나 聖歌劇의 形式은 西欧의 古典美術技法이나 伝統劇 形式과 크게 다르지 않다。

感覚文化指向的인 対内 聴衆들에게 幼稚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聖書의 修辞学을 위해 所謂 「民族語」를 意識的으로 開発하여 固有말을 集中的으로 駆使하고 있는데 이것은 社会的인 側面에서 没生活指向的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한 民族의 言語를 어떻게 한 사람의 위대한 天才가 혼자 만들 수 있는가? 対内 聴衆들이 納得하기 어려운 文化的 側面인 것이다。

3. 弘報方法

i. 마스콤

韓国体制에서 마스콤은 가장 普遍化된 弘報찬넬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마스콤은 우리 社会의 大量消費構造가 拡大되면 될수록 多様한 패턴으로 発達할 것이다. 텔레비전·신문·週刊誌, 商業放送 映畵가 이를테면 우리 社会의 支配的 마스메디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社会 成人人口의 거의 전부에 到達하고 있다. 마스콤 効果에 관한 一般的인 懷疑가 学者들 間에 論議의 対象이 되고 있지만 過多한 人口가 密集한 南韓地域에서 現代式 마스콤의 波及効果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統一問題의 対内弘報方法에서 우선 마스콤 対策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①北韓뉴스의 報道와 論評의 問題 ②蘇聯·中共·東欧 共産圈 紀行報道 ③北韓政治裏面史의 도큐멘터리 発掘 등의 구체적인 事業方案을 提議하기로 한다.

(1) 北韓뉴스의 報道와 論評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政治·経済·軍事·外交·社会·文化 스포츠 등 各側面의 움직임——한마디로 北韓뉴스를 어떻게 国内 여러 메디아에게 供給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결국은 北韓뉴스를 蒐集·綜合·分析하여 각 메디아에 配給해 줄 수 있는 우리나름의 独自的인 뉴스 소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北韓通信」과 같은 第一次的 메디아의 性格을 가지게될 것이다.

이 「北韓通信」은 서울에 本部를 두고 海外에 支社를 두어 北韓関係 資料를 모아야 하는데, 반드시 民間言論机関으로서 政府의 北韓뉴스 取扱認可를 받아서 일정한 뉴스配給料를 각 메디아로부터 받아 運営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半官半民이라든가 政府直営은 政府의 直接的인 弘報活動으로 誤解되어 뉴스의 信憑度를 떨어뜨리는 結果를 가져오기 쉽다. 뉴스의 信憑度는 각 메디아에게 먹히는 確率을 決定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対内弘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対外弘報일 경우 絶対的인 影響이 있을 것이다.

北韓뉴스의 소스는 우선 北韓의 마스콤을 통해 전파되는 그쪽 体制의 公式뉴스를 들 수 있다. 北韓마스콤은 周知하는 바와같이 대부분 宣伝的 内容을 전파하고 있으나 아무리 宣伝的 内容이라해도 그 속에 담긴 客観的 事実을 전연 無視할 수는 없다. 오히려 宣伝的 内容을 담은 公式뉴스에서 상당한 客観的 事実을 抽出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北韓 公式뉴스에 담긴 客観的 事実을 資料로 北韓의 움직임을 報道하는 새로운 北韓뉴스記事를 다음과 같이 作成할 수 있다.

例① 평양放送 11月17日 10시보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월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와 월남 민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들에서 천명된 정당한 입장과 요구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以下

성명省略).

1973년11월16일 평양」 例①은 北韓외교부 성명의 公式 発表記事의 리드부분이다. 이것을 客観的 報道記事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北韓외교부는 16일 최근 越南에서 休戦協定을 위반하는 새로운 事態의 責任을 美国과 越南政府에 돌리는 非難声明을 발표하고 越盟의 성명을 지지했다. ……」

例② 朝鮮中央放送 11월16일 9시보도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승리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農村에 더 많은 자동차를 보내기 위한 힘찬 努力闘争을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튼튼히 꾸리며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겠다. 그리하여 앞으로 2년안에 매해에 뜨락또르 3만대, 자동차는 1만5천~2만대씩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룩해야 겠다. 어버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아로새긴 이곳 자동차 생산자들은 사회주의 협동벌에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불꽃튀는 努力闘争을 했다. 지금 이곳 자동차 생산자들은 지난 10月에 비해서 1.6배에 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연일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공정에 첫 공정을 맡아 나선 주물직장 노동자들은 요즘 매일 계획을 2배로 넘쳐하고 있고 가공

부문 노동자들은 선전기술을 받아들여 일은 힘하게 하면서도 매일 계획량에 4배에 달하는 일을 해제끼고 있다.」

例②는 트랙터와 貨物자동차를 만드는 北韓에서 가장 우수한 자동차 공장의 생산목표에 관한 宣伝記事이다. 여기서 客觀的 事実을 可能限대로 抽出하여 記事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은 최근 부쩍 트랙터生産을 增大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1975年末까지 全国의 生産目標를 트랙터 3만대·貨物자동차 1만 5천~2만대로 세우고 이를 達成하기 위해 海外技術을 導入해 가면서까지 促進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트랙터 공장의 경우 鑄物부문은 아직 재래식 기술을 活用하고 있으나 加工부문은 새로운 外国기술을 導入하고 있는 것이다.」

例③ 朝鮮中央放送=11월 14일 10시보도

「평양체육관에서 지난 9일부터 계속되어온 1973년도 사회주의 나라 청소년친선국제 역기경기대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13일에 끝났다.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튼튼한 체력과 주체적인 역기기술을 연마하여온 우리나라의 나어린 역기 선수들은 이번 역기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림재호 선수는 52kg급 추켜올리기와 종합성적에서 청소년 세계신기록을 세워 주체체육의 위력과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쳤다. 한편 불가리아 선수들은 모든 종목에 걸쳐, 쏘련선수들은 중량급 경기들에서

훌륭한 역기기술과 성적을 보여주었다. ……(中略)…이번 경기대회에서 받은 선수단별 메달 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독일 선수단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로무니아 동 2, 불가리아 금 4, 은 5, 동 8, 웽그리아 은 4, 동 3, 체스코슬로벤스코 동 2, 쿠바 동 1, 뽈스까 은 3, 동 1, 쏘련 금 11, 은 2, 동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 7, 은 11, 동 2」

例③은 스포츠記事의 例다. 비교적 事実資料가 豊富한 列로 다음과 같이 記事化해 본다.

「共産圈 9個国이 参加한 1973년도 청소년力道大会가 지난 9일부터 평양에서 열려 13일 5일간의 경기를 모두 끝냈다. 소련은 重量級을 席巻하여 金메달 11개로 1위를 차지했고 北韓은 軽量級을 노려 金메달 7개로 2위를 維持했다. 각국 메달 順位는 다음과 같다. ①소련(11·2·4) ②北韓(7·11·2) ③東独(5·2·4) ④불가리아(4·5·8) ⑤항가리(0·4·3) ⑥폴랜드(0·3·1) ⑦체코(0·0·2) ⑦루마니아(0·0·2) ⑨쿠바(0·0·1)」

以上에서 例示한 것처럼 北韓公式뉴스를 客観的 報道記事로 바꾸는 문제는 얼마든지 可能하다. 「北韓通信」은 그와같은 뉴스와 함께 持続的인 研究와 資料分析을 基礎로 北韓의 実相을 보다 深層까지 파헤칠 수 있는 権威있는 解説記事를 아울러 配給하면 効果的이다. 간혹 客観的 報道뉴스인 경우에도 註釈과 미니解説을 붙혀 뉴스의 皮相的인 宣伝性을 철저하게 필터링 하는 방법까지

준비해 두면 더욱 좋다.

(2) 共産圈 紀行報道

対内 聴衆들은 현재 北韓以外의 다른 共産圈에 관한 一般的인 뉴스를 外国通信에 의해 伝達받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大統領의 6.23平和統一外交特別宣言 이후 北韓以外의 다른 共産圈과의 公式 非公式 接触의 可能性이 増大하면서 共産圈 世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機会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対内 聴衆들은 北韓의 廃鎖的 共産体制와는 다른 東欧를 비롯한 共産圈世界를 다녀온 韓国人들의 報告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対内 聴衆들의 最初의 反応은 演劇人 유덕형氏의 모스크바 訪問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후 계속해서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大会를 계기로 体育人들의 大挙進出과 経済人들의 레닌그라드 観光등 共産主義 宗主国으로 알려진 소련 紀行이 많은 対内 聴衆들의 時代感覚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共産圈世界에서 北韓의 客観的 位置를 識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国内신문들도 다투어 東欧圈 特派를 試図하기에 이르렀다. 勿論 그것은 아직 観光비자를 利用한 短期的인 旅行에 不過하지만, 지금까지 타부視되어온 禁断의 世界가 우리 뉴스의 발로 밟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対内 聴衆들의 흥미와 관심을 한껏 돋우는 것이다. 우리 記者들은 이제 소련과 東欧圈을 처음 征服하는데 성공했다. 우리 記者가 보고 쓴 東欧 紀行報告를 통해 対内 聴衆들은 北韓

体制의 虛構的 베일을 한꺼풀 더 벗긴 셈이다。

東欧와의 交流 더 가까이는 中共과 같은 또다른 未知의 世界의 探索을 効果的으로 応用하는 길이 오늘의 弘報方法의 색다른 側面이라 하겠다。

(3) 도큐멘터리 発掘

北韓体制의 実相을 가장 正統的으로 폭로하는 方法은 역시 北韓政治裏面史와 같은 도큐멘터리의 発掘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 無条件的 反共風土에서 자라난 対内 聴衆들은 우선 韓国의 共産主義 運動에 대해 전혀 無知할 뿐더러 金日成이 韓国의 共産主義 運動史에서 어떤 役割을 했으며 어떤 意味를 갖는가 理解할 길이 없다。 北韓体制의 歷史的 発達過程을 마스콤에서 폭로할 수 있는 効果的인 方法은 反共映畵 反共드라마와 같은 再来式 픽션보다는 역시 生生한 도큐멘터리方式 논픽션 쪽일 것이다。

北韓政治裏面史를 폭로하는 도큐멘터리들은 신문 連載物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記錄 映畵 등 여러가지 세련된 形式의 마스콤內容으로 製作될 수 있다。 원래 라디오에서는 도큐멘터리 드라마 形式이 상당한 水準으로 発達하여 많은 聴取者를 確保한 人気프로그람으로 定評이 나 있다。 라디오 도큐멘터리 드라마 역시 反共物을 다루면서 보다 迫進感을 살린 것도 周知의 事実이다。 再来式 픽션 反共物 대신 새로운 논픽션 反共物은 훨씬

더 効果的인 마스콤內容으로 많은 聽衆을 確保하리라고 본다.

北韓政治裏面史를 폭로하는 方法에서 韓国共産主義運動에 直接 参与했던 人物의 体驗的 記録이 聽衆 効果面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勿論이다. 그런 人物이 반드시 有能한 作家의 筆力을 못따를 경우는 証言을 고호스트 라이터가 대신 써 줄 수 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筆者이름을 그 人物로 해두는 것이 効果的이다.

최근 中央日報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固定 企劃欄에 長期間 連載된 朴甲東氏의 「내가 아는 朴憲永」은 상당히 많은 読者를 確保하고 좋은 反応을 보였던 것으로 評価되고 있다.

筆者 朴甲東氏의 本名은 林英樹. 林英樹氏는 自身의 紹介를 따르면 해방후 南労党 地下組織의 宣伝副責으로 地下党 幹部를 지냈고 動乱중 越北하여 金日成 政権의 文化宣伝省 欧羅巴部長을 歷任한 共産官僚로 金日成의 南労党系列 肅清에 반발하여 北京 経由 東京으로 亡命한 反金日成 転向者이다. 한때 누구보다도 熱烈했던 土着共産主義者 理論分子가 金日成体制의 矛盾을 実感하고 金日成体制는 勿論 共産主義 自体에 失望하는 過程은 読者들을 感動시키고도 남을만하다. 朴甲東氏의 새로운 体驗手記 「서울·평양·北京 東京」이 현재 서울신문에 連載중이다.

이와같은 類의 논픽션 発掘은 아직도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본다.

ii。教 育

統一弘報에서 教育이 차지하는 比重은 実로 重大하다 하겠다。 자라나는 世代의 統一観은 家庭과 社会의 生活領域과 직접적으로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統一観指導는 社会底辺에 폭넓게 적용되는 統一弘報가 된다。

学校教育의 側面에서 統一弘報를 分析해 보면 지금까지는 뿌리깊은 体験的 反共思想에 根本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一定한 角度에서 北韓共産主義集団을 透視하고 이를 一定한 様式으로 注入시키는 것이다。

南北対話의 開始와 박정희大統領의 6.23宣言이후 우리는 韓半島의 北半部에 共産主義政権이 現実的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内外에 認定했고 또 그들과 政治的 「레벨」에서 対話를 나누고 있다。

統一教育은 이같은 南北関係의 発展에 機敏하게 適応, 多様한 教案으로 보다 積極的인 教育活動을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此項에서는 첫째 「統一」教育의 目標와 方向, 둘째 教育内容 세째 교원전문화 등 3項으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1) 目標와 方向

教育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設定되어야 하는 것이 教育目標이다。 統一弘報的인 教育에 있어서도 우선 目標 設定이 重要하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目標는 反共思想의 확립과 이에따른 指標로 勝共統一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것은 앞으로도 궁극적인 目標로 設定되어야 하겠으나 南과 北이 서로 상대방의 存在는 勿論, 体制까지 公認하면서 対話와 往来를 実施하는 現実속에서는 자칫 思考의 混乱을 招来하기 쉽다.

이같은 混乱을 막기 위해서는 教育의 目標를 궁극적인 目標와 当面目標로 나누어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反共」은 統一教育에 있어 基本思想으로 정립되고 勝共統一의 信念을 確立하는 것이 궁극적인 目標로 整理되어야 하겠다.

이같은 体系위에서 北韓共産主義 集団의 実体와 그들의 統治圈인 北韓地域의 実状을 정확히 把握케 하여 이를 토대로 被教育者가 각기 독자적인 知識과 角度로 北韓共産主義集団을 批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教育의 「当面目標」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이같은 目標를 向해 단계적으로 接近하는 方向에서 諸 教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教案은 基本思想이 되는 「反共」과 当面目標 그리고 窮極的 目標를 区分하여 마련하되 一定한 体系위에 定立되어야 한다.

教育의 方向은 教材중심의 注入式을 지양하고 視聽覚教育과 写実的인 栈会教育등을 통해 理解의 深度를 漸進的으로 깊게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또한 教育者가 被教育者에게 一方通行的인 教授方式이어선 効果의 極大化를 期待키 어렵다.

一定한 「테마」를 놓고 被教育者끼리 서로 討論을 展開하도록 한다든가 一定한 「테마」에 대한 教課를 끝내고 各者의 意見을 発表케 하는 것등은 매우 바람직한 教育方向이라 하겠다.

이같은 方式은 共産主義에 대한 批判能力을 培養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批判精会를 家庭이나 社会生活속에서 積極的으로 또 自発的으로 포착하는 習性을 갖도록 하는 効果를 期待할 수도 있다.

(2) 教育内容

우선 各級教育機関에서 使用되고 있는 反共教材와 教案에 대한 根本的인 再検討와 再整理作業이 앞서야 겠다.

南北対話時代에 있어 統一教育의 教案은 政府의 総力 弘報政策의 体系에서 合理的으로 樹立되어야 한다.

하나의 教課로서 「統一」은 一定한 方向과 限界에 구애되지 않고 変化無常하게 発展해 가는 現実的인 南北関係에 無理없이 対処해야 하는 内容上의 特性을 政府의 総力的인 統一弘報에 연결지어 規定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一貫性있게 展開되어야 한다는 것이 教材의 작성後에 特別히 有意되어야 할 点이다.

上述한 「当面目標」로 指向하기 위한 北韓의 現況把握은 ①北韓共産主義集団의 生成과정과 実体 ②金日成의 実像과 虚像 ③北韓의 体制的 「이데오르기」인 金日成우상화정책의 実態

④統一政策과 対南革命戦略 등 「政治的」것과 北韓地域의 現状을 익히는 ①国土教育 ②社会生活과 共産文化 ③経済의 虚実등을 예리하게 分析, 단계적으로 把握케 해야할 것이다.

南北間의 対話있는 対決의 時代에 있어 相対方에 대한 정확한 把握과 認識없이 우리体制에 대한 相対的인 優位観念扶植과 積極的인 北韓批判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極端的이고 盲目的인 反共教育이었다. 그것은 対内思想무장의 効果는 있었으나 積極的이고 날카로운 対北批判能力을 키우는데에는 결코 満足스러운 効果를 보지 못했다.

北韓을 把握하는 教育은 北韓의 実在를 認識시키므로서 우리나라의 한 부분인 北韓을 忘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勝共統一의 意志를 키워 나갈 수 있다.

「国土教育」은 北韓의 地理와 그들나름의 行政区域, 人口 및 産業分布実態, 새로운 共産風物状등의 現況을 익히는 것이다. 또 「社会生活」과 「共産文化」는 北韓式 共産主義社会에서 実在로 이루어지고 있고 個人 및 団体生活, 思考方式 및 衣食住様式등을 소개하는 教課가 되고 「共産文化」란 北韓의 붉은 文化의 概念과 発展方向을 写実的으로 알아보는 教課가 된다.

이같은 일련의 北韓把握教育은 南北間 政治的인 「레벨」에서의 対話의 계속은 説明이 되면서도 社会·文化·地理的인 見識의 拡張은 禁断視하는 教育的 矛盾을 是正하고 나아가서는 各者가 積極的인 北韓生活相을 生覚나는대로 批判할 수 있는 資料의 提供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教案 樹立時 자칫 北韓宣伝的인 傾向을 보일 失手를 범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点은 事前에 各界 専門家들에 의한 多角的인 検討가 先行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다음으로 挙論코저 하는 것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対話가 보다 積極的으로 教育内容에 反映되어야 한다는 点이다.

南北対話의 배경과 意義등은 勿論이고, 対話에서 双方에 의해 提提起된 案件에 대한 具体的인 研究와 批判이다.

우리側 案件의 合理性과 当為가 充分히 提示되어야 하며 北韓側 案件의 底意 특히 그들의 対南革命戦略과의 相関性이 예리하게 分析되어야 하며 또한 現実을 無視한 無理등이 구체적 理由등을 들어 批判되어야 한다.

南北対話에서의 双方案件에 대한 批判問題는 試験問題로서 採択되어도 좋다.

南北間 対話있는 対決의 時代에 있어 南北対話에서 提起된 案件에 대한 研究야말로 教育目標에 副応할 수 있는 最善의 教育内容이 되며 또한 総力的인 統一弘報의 推進에 있어 가장 진지한 効果事業의 하나가 될 것이다.

끝으로 統一教育은 教場을 넘혀야 한다는 것이다.

一定한 教材를 낭독하고 説明하는 式의 教育方法은 特히 統一弘報面에서 보면 効果의 極大化를 期待하기 어렵다.

上述한 바도 있지만 視聴覚教育方法以外에 統一과 反共 및 勝

共에 관계되는 各種 記念地를 見学, 現場教育을 시도하고 特히 高等学校를 卒業하기 前까지 全学生이 적어도 한번씩은 반드시 前方의 軍部隊를 見学케 하여 南北対話속에 엄연히 実存하고 있는 祖国防衛戦線을 実感케 하여야 한다。

이같은 前方見学 教育은 最前方戦線을 訪問, 将兵의 役割과 労苦를 익히고 前方의 敵의 実在를 観測케 하여야 함은 勿論, 軍部隊의 機動訓練등을 한번씩 直接 参観케 하여 感覚的인 戦闘概念을 扶植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같은 教育은 前方将兵의 慰問行事도 兼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前後方의 一体感을 実質的으로 助長시켜 最善의 総力安保로 発展한다.

南北対話의 教育도 会談現場見学은 어려운 일이지만 会談에 参席 또는 参観한 会談当事者나 報導関係者를 直接 초빙, 会談内容과 함께 분위기, 「에피소드」등을 直接 들려주고 質問을 받는 것도 하나의 現場教育이 되는 것이다.

要컨데 統一教育은 단순한 教課과정의 하나로 보아서는 되지않고 総力的인 統一弘報의 体系에서 보다 実感있고 説得力있게 施行되어야 하며 特히 어떤 対象物의 注入보다 批判能力의 培養을 이룩할 수 있는 方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教員専門化

統一教育에 있어 教育담당자의 資質 専門化는 教育成果面에서 매우 重要한 要因이 된다.

関係当局에 의해 製作된 教材의 公式主義的 説明과 市井 客談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常識의 線에서 創出된 教案으로 配当된 時間이나 메꾸는 次元의 教育課程은 総力的 統一弘報의 概念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教育담당자의 専門化가 要求된다.

우선 「統一」教育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知識의 専門化 方案이 講求되어야 한다.

知識의 専門化는 政府当局이 시도하는 統一弘報教育의 基本方向과 誘導方式 및 期待効果에 대한 正確한 認識부터 扶植시켜야 한다.

地方에 따라, 学校에 따라 또 담당教員의 資質에 따라 伝達方式과 深度에 差異는 있는 것이 지금의 実情이다.

統一弘報教員은 全国의 各級教育機関에서 同一한 体系에 의해 同一한 方向으로 施行되어야 하며 対北知識과 理解의 深度 또한 大同小異한 効果로 나타나야 한다.

教育方向에 대한 基本指針은 市道別 単位로 南北関係의 発展양상에 따라 수시로 機敏하게 담당자의 教育会議를 소집, 認識시키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된다.

教育内容을 보다 実感있고 深度있게 하기 위해 담당教員特訓 제도를 一定한 体系를 세워 実施하면 교수방법向上에 획기적인 効果를 期待할 수 있다.

이 「特訓」은 講義為主에서 完全 脱皮하여 反共·勝共 및 南北対話에 直間接的으로 動員되고 使用된 生生한 資料들을 直接 参観

하고 現場을 깊이있게 觀察토록 하는 것이다.

特히 南北対話 資料의 경우 「오리지널」을 직접 보도록 하고 이 資料의 作成 또는 製作 취지 및 「에피소드」등을 作成 및 製作者로부터 직접 듣고 教育弘報的 側面에서의 発展을 図謀하기 위한 健全한 討議를 하도록 한다.

또 板門店의 会談現場을 会談이 없는 時間을 골라 한번씩 直接 답사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같은 일련의 計劃은 담당教員들로 하여금 보다 実感있고 意慾的이며 信念있는 教育에 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被教育者들도 보다 信憑性있게 그리고 生動感있게 教育内容을 接受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담당教員들의 손에 많은 弘報資料가 配布되어야 하겠다.

一線教育者들에게 配布되는 教育資料는 一定한 것이며 그것은 이른바 「教育」의 性格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総力弘報時代에 있어 「統一」教育을 統一弘報의 槪念과 差異를 굳이 둘 必要가 없다.

따라서 各種 弘報資料는 바로 教育資料가 된다.

教育資料를 더 많이 製作하는 것도 勿論 重要하겠으나 일반 弘報機関에 配布하는 資料를 教育機関에도 均等하게 配布하여 資料의 貧困을 招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大衆行事

統一弘報에 있어 「매스컴」의 報導와 教育機関에서의 学習活動만으로는 総力的인 弘報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成果의 極大化는 어렵다.

国民 各階層의 취향에 迎合하면서 生活속에서 누구나 부담없이 自発的으로 弘報効果에 参与되도록 하는 방법은 大衆的 性格의 各種行事를 展開하는 것이다.

이를 分析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行 事

弘報効果面에서 大衆的 行事는 무엇보다 視聴覚行事를 가장 比重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周知하다싶이 現代는 映畵나 TV의 時代이다. 따라서 映畵와 TV를 자연스럽게 利用하는 方向에서 大衆弘報가 組織되어야 하겠다.

映畵에서는 体験的 反共 劇映畵의 제작을 우선 들 수가 있다.

지금까지 映畵界에서는 이같은 類似反共物이 적지않게 제작이 되었으나 量的인 面에서 満足할만한 線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그것들중의 大部分이 水準以下의 유치한것 들이어서 大衆들로부터 外面되다싶이 했다.

우리나라의 反共映畵는 흔히 6.25動乱의 外形的인 面을 어설프게 素材로 択하거나 아니면 外畵를 본딴 엉터리 첩보물이다.

南北対話 時代에 있어 反共영화는 그와같은 수박겉핥기式으로 反共의 外形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弘報의 効果를 거둘 수가 없다.

우리体制의 最大 強点은 自由스러운 人間生活이다.

小市民의 生活에서 人間가치의 尊厳과 自由를 놓고 이를 위협하는 敵色対象과 人間的인 闘争을 벌이는 그런 次元의 劇映畵가 対話時代에서 바람직한 説得力을 発揮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되어진다.

이같은 高次元的인 反共·勝共영화의 제작과 함께 北韓社会의 内部的인 갈등을 그리는 映畵 또한 바람직하다.

그리고 6.25動乱을 비롯한 各種 「도큐멘타리」영화를 量産하여 모두가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6.25動乱의 경우 자라나는 世代에겐 하나의 歷史的 事件으로밖에 実感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南北緊張의 源泉的 事件이 되는 6.25動乱의 各種 「도큐멘타리」는 그들에게는 많은 感興을 불러일으킨다.

TV의 경우도 「드라마」類는 上述한 映畵問題에 準하는 것이며 特集「프로」를 통한 積極的인 弘報가 아쉽다.

일반 行事를 크게 教育機関에서의 課外行事와 大衆行事로 나누어 보겠다.

学校에서의 課外行使로는 学芸会와 発表会, 見学, 映畵관람등 直接的인 것을 들 수 있겠고 그밖에 運動会의 한 種目으로 安保実技의 採択, 反共전적지 답사를 곁한 소풍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일반 大衆行事로는 北韓의 全体主義속에서의 암담한 個人生活相을 主題로한 사랑방座談会를 조직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때 座談会의 演士를 가급적 体験者 即 帰順者와 南北対話에 관여한 要員들로 구성하고 座談의 進行은 自由스럽게 해야 하겠다. 이 座談会는 年令別 性別 그리고 学識別로 나누어 座談의 水準을 조정해야 한다.

또 6.25 動乱과 그 以後 오늘날까지의 갖가지 反共 体験手記를 널리 모집, 각 「메디아」에서 「드라마」化하는 것은 弘報効果면에서 바람직 하다. 여기에서 特히 각 마을単位의 反共闘争 및 勝共生活 経験談을 발굴하는 것도 意義있는 行事가 된다고 본다.

現在 反共聯盟에서 벌이고 있는 行事를 보면 취약지구巡廻, 共産主義批判, 大統領배쟁탈 웅변大会, 自由의 날 記念行事, 反共有功者표창, 教育訓練등인데 이같은 것은 자칫 行事를 위한 行事에 그치고 쉽기 때문에 弘報的側面에서는 効果가 의문視된다.

이같은 行事는 모두 弘報面에서 再検討 効果를 測定하여 有名無実한 것은 廃止하는 것만 못하다.

다음으로는 各種 記念일을 弘報的 側面에서 一面 활용해야 한다.

反共·勝共 또는 南北関係의 記念日을 철저히 발굴하여 全国的인 性格의 것은 全国的 規模로 또 「로칼」的인 것은 地方別로 記念行事를 가져야 한다.

記念行事라면 우선 記念式을 연상하게 되는데 「式」을 지양해야 한다. 미리 企劃, 準備한 記念映畵를 상영하는 것이 역시 効果面

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다 하겠고 다음으로는 記念日의 意義를 充分히 살린 公演 또는 体育·오락행사의 개최등이다.

이같은 일련의 行事는 「레이크레이션」을 兼한 것이므로 大衆動員이 쉽고 또 動員된 大衆들에게 부담감없이 弘報効果를 注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記念館

계속되는 民族的 受難을 극복하며 힘겹게 生存해가는 民族으로서 우리民族 처럼 그와같은 것을 記念하는 史実的 「스페이스」를 갖지 못하고 있는 民族도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 民族 의 悲劇인 6.25 動乱 記念館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狀態下에서 올바른 国家観이 정립될 것인지 의문視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6.25 記念館의 建立을 提唱한다.

6.25의 발발로부터 激戰의 生生한 記録 그리고 祖国과 自由의 大義名分앞에 散華한 수많은 젊은 闘士들의 怒号소리가 들리며 6.25의 民族史的 意義가 総整理된 展堂이 있어야 한다.

이 전당은 反共의 歷史的 遺物이며 民族의 基本思想으로서의 「反共」의 当為를 視覚的으로 説明하는 곳이다.

이 전당은 国民 各界各層의 필수적인 参観「코스」로서의 価値가 集大成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南韓内의 뜻깊은 戦蹟地를 골라 4半世紀前의 激戦을 엿볼 수 있도록 整理해 두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된다.

이 戦蹟地에는 우선 当時의 戦蹟을 기리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그리고 유물전시관을 建立하고 当時의 状況에 따라 陣地를 構築하고 装備를 備置해 参観者들이 戦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이곳을 安保教育의 野外教場의 하나로 利用한다.

이밖에 学校別로 勝共舘 또는 室을 따로 마련, 学生들의 自発的인 参与로 各種 記念物과 오늘의 座表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것은 現在 反共聯盟의 주관으로 서울과 光州 그리고 馬山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有名無実한 것으로 大多数 国民들이 그런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実情이다.

이와는 別途로 北韓実情을 폭로하는 「北韓舘」 같은 것을 各地方에 設置하여 南北対話時代에 있어 올바른 北韓観을 갖게 하는 것도 重要하다.

이 北韓舘에는 우선 北韓地域의 地理와 人口 및 産業分布図와 主要軍兵力주둔지를 표시하는 北韓地図를 造形, 비치하고 政治·社会·文化·経済등의 生活状을 批判的인 角度에서 表示하며 따로 北韓의 対南工作員이 휴대했던 装備의 実物을 몇개씩 備置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이같은 일련의 記念舘은 勿論 総力的인 統一弘報의 側面에서 企劃되어야 하겠으며 이같은 記念物에 대한 参観을 통한 弘報

效果의 極大化를 계속 研究, 発展시켜야 할 것이다.

4. 行政体制

i. 分断諸国의 統一机構

(1) 西独의 경우

西独에서는 全独逸問題省과 外務部東欧局統一課가 統一問題를 専担하고 있다.

全独逸問題省은 ①東西独間의 文化的, 社会的, 歷史的見地에서 본 単一民族, 単一国家로서의 相互紐帶를 堅持하기 위한 政策의 樹立 ②経済交流를 위시한 各方面에 있어서의 相互交流促進 ③東部地域 및 東部国境線의 政治的 法的問題에 관한 対策樹立 ④東独共産化 実情에 関한 調査와 情報蒐集, 東部에서부터의 避難民救護, 人口, 労動経済問題와 国民性問題등의 調査研究와 国民思想의 啓蒙 ⑤베르린管理와 行政, 其他 베르린市에 関聯되는 諸般問題를 取扱 ⑥統独対策의 講究, 統独後의 行政 및 其他措置의 講究등을 任務로 하고 있다.

机能面에서는 総務局, 第1局, 第2局, 第3局등으로 나누어진다.

総務局은 全独逸問題者의 行政과 公報 및 情報業務를 分掌하는 4個課와 審計를 위한 1個特別課가 있는데 公報는 第4課에서 担当하고 있다.

第1局은 蘇聯占領地域 및 東部地域에 관한 諸般問題 全独思想問

題, 統一対策에 관계되는 政治, 経済, 法律, 文化保存, 婦女子 및 年少者保護, 国民性問題, 難民救護, 統一後의 措置研究検討등을 分担하는 13個課로 나누어져 있으며, 第2局은 베르린市의 管理 및 避難民救護, 経済, 社会, 財政, 教育, 公報, 情報, 会計등의 6個課, , 第3局에는 東部国境以外의 境界地域에 관한 一般的인 政治, 法律, 経済問題, 国境地帯의 文化保存 其他 社会問題등을 다루는 3個課가 있다.

外務部東欧局統一課는 全独逸問題省과는 別個의 機構로 UN 및 独逸統一에 관한 国際会議関係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西独의 統一問題機構編制는 専担研究分野가 細分化되어 있을뿐 아니라 従的인 編制로 되어 있어 事業의 効率化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

(2) 東独의 경우

東独政府의 独立된 省級機関으로서 「独逸統一委員会」가 있는데 이는 内閣의 宣伝機関役割을 하고 있다.

任務는 ①東独政府의 基本方針에 의거한 統独問題와 講和条約締結問題의 取扱 ②宣伝的 刊行物의 発刊配布 ③西独内의 急進的平和主義者 및 反政府対立主義者煽動등이다.

(3) 自由中国의 경우

大陸収復을 위한 専担機構로는 総統直属下에 「大陸光復設計研究委員会」가 있다. 그밖에 行政院直属下에 経済動員計劃委員会

国防部에 戦時政務局을 新設하고 있다.

任務는 基本研究, 地域別研究, 部門別研究로 나누어져 있다.

①基本研究는 国府가 大陸에서 참패한 根本原因研究, 現中共政権에 正面으로 対立할 수 있는 方案研究, 大陸収復以後 中共政権이 実施한 諸政策의 顚覆方案의 研究등이며,

②地域研究는 中国大陸에서 台湾으로 撤収한 有能한 人士中에서 各省出身別로 人情·風習·政·経·史等 諸背景의 調査研究, 過去 国民党이 犯한 過誤와 現中共政権이 犯하고 있는 過誤의 対照検討, 収復後의 自己出身에 대한 最善의 施策樹立

③部門別研究는 大陸収復後実施할 政治·経済·社会등 各部門別 分類研究, 大陸収復後 共産主義理論을 紛砕할 三民主義理論의 広範한 研究, 現中共政権이 土地를 国有化시킨데 대한 収復以後 私有制度로 復元할 制度의 確立(土地改革問題) 現中共 政権이 実施하고 있는 「民兵化」를 自然的인 方法으로 原状還元하는 方法의 研究, 大陸収復初期에 実施하게 될 軍政의 諸施策 및 実施方法의 研究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4) 中共의 경우

民主統一戦線組織의 一環으로 「中国人民政治協商会議」와 그 傘下団体로 「台湾民主自治同盟」이 있다.

그리고 共産党中央委員会에 「統一戦線工作部」가 있는데 이 工作部가 그들의 이른바 台湾解放闘争을 総指揮하며 基本政策과 情勢의 変化에 따라 当面政策을 樹立하여 外交部와 中国人民政治協商会議를

통해 実行하고 있다.

人民政治協商会議는 中共内의 政党代表, 地方代表, 軍人代表, 人民団体 및 特別招待人士로 組織되어 있으며 主任務는 다른 共産国家의 統一戦線과 마찬가지로 宣伝攻勢를 取하는 것이며 加盟団体인 「台湾民主自治同盟」을 通해 이른바 台湾民主化解放을 推進하고 있다.

(5) 越南의 경우

休戦이 되기이전의 統一政策은 武力에 의한 戦争遂行政策이므로 南北越南의 統一問題를 다룰 専担機構가 없었다.

다만 政府의 諮問에 応하고 있는 機構가 있어 越南의 統一問題와 그밖의 問題들을 非公式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程度이다.

(6) 越盟의 경우

이른바 統一戦線体인 「베트남祖国戦線」과 南部越南에 組織되고 있는 「南部越南解放戦線」과의 緊密한 協助아래 武力的手段에 의한 全越南의 赤化統一을 試図하고 있다. 베트콩은 이들 戦線機構의 前衛隊로서 南部越南에서 大小規模의 게릴라戦을 展開해 왔다. 이밖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統一問題専担機構는 없다.

(7) 北韓의 경우

共産専制社会에서 絶対権力을 갖고 있는 労動党이 統一問題機構에 대한 規制와 統率을 하고 있다.

党自体組織인 党連絡総局이 統一問題에 대한 全部를 統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른바 赤化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戦略의 一環으로

試図되고 있는 対南工作事業도 党에서 総指揮한다.

이밖에 経済関係各省에 韓国에 관한 해당부문연구기구가 있으며 郡人民委員会에도 3人의 副委員長가운데 한사람이 郡級「레벨」에서 韓国問題를 담당하고 있다.

民間桟構로서는 1949년6월에 設立된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과 60년5월에 結成된 祖国平和統一委員会가 있다. 그동안 北韓측이 제시한 統一提議나 呼訴文이 主로 이들 民間桟構에서 나왔다는 것은 興味있는 事実이다.

특히 前者는 動乱前 北韓의 各種団体와 政党, 南韓의 左翼政党, 団体를 총망라했다는 것이며 後者는 4.19以後 越北한 共産主義同調者들로 構成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두 桟構는 労動党의 完全한 장악하에 利用되고 있다. 그리고 1956년7월 남북人士 몇사람으로 構成되었다는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会라는 桟構가 있는데 対外的으로는 거의 利用되지 않는 有名無実한 団体로 알려지고 있다.

ii. 韓国의 統一問題桟構

以上에서 分断国들의 統一問題担当桟構를 概観했다. 分断国들은 歴史的 民族的 文化的 単一性에 따라 統一을 成就해야 한다는 目標아래 形態는 다르지만 그나름대로의 統一問題担当桟構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現行政府組織法上 몇개部署에서 統一問題를 分掌하고

있다.

우선 国土統一院이 있다. 統一院은 統一問題를 綜合的이며 專門的으로 研究処理할 수 있는 唯一한 專担機構이다.

그밖에 外務部邦交局 国際聯合課, 外交研究院, 国家安全保障会議事務局, 中央情報部, 文公部, 内務部治安局情報課 以北 5 道庁, 韓国反共聯盟 등이 있다.

그러나 統一院을 除外하고는 各部署의 基本業務에 附随하여 事業을 執行하고 있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機構의 構成이나 規模로 보아서도 充分한 活動을 기대할 수 없는 現状이며 綜合的이고 体系的인 研究를 專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各機構間의 協助나 紐帯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폐단이 있다.

統一問題機構의 編制上에서 나타나고 있는 不合理性과 이에 따른 統一弘報行政体制面에서의 非能率性을 止揚하기 위해 몇가지 建議를 試図해 본다.

(1) 本格的인 南北対話時代에 대비하여 統一院의 機能을 보다 拡充強化하여 名実共히 統一問題機構의 中枢機関으로 再整備함이 必要하다.

지난 64년 統一方案에 대한 体系的이고 綜合的인 判断을 내릴 수 있는 機構의 設置가 必要하다는 与論에 따라 ①政府안에 独立機関을 設置하는 案 ②現存機関에 附設하는 案 ③国会에

特別委員会를 두는 案등이 검토되었으나 独立機関을 設置하면 ①集中的研究가 可能하고 ②各部間의 원활한 協助가 可能하며 ③政策反映이 容易迅速하고 独自的活動이 活潑하다는 長点이 있어 統一院이 新設되었으나 그러한 長点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統一問題에 관한限 統一問題를 分掌하고 있는 各部処間의 横的紐帯나 協助問題도 장차는 統一院이 統轄 調整하도록 해야만 事業을 効率的으로 実行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統一問題関係機関들은 거의 散発的으로 그리고 排他的으로 事業을 執行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中央情報部가 統制位置에 있긴 하지만 対内弘報事業에서는 非効果的이라고 判断된다.

(2) 統一政策을 최종적으로 協議決定하는 超党的인 機構가 必要하다.

各界各層의 代表的인 人士들을 参与시켜 모든 国民들이 参与意識을 갖게 한다면 宣伝力量의 組織化에 크게 寄与하게 될 것이다.

이 機構는 常設化하여 当面한 統一問題있슈를 그때그때 協議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앞의 政策決定協議機構와는 別途로 統一問題関係機関과 弘報媒体의 統一問題専門家 및 担当者들로 구성되는 協議機構가 절실히 必要하다.

왜냐하면 政府의 統一問題関係者와 弘報媒体에 종사하는 専門家 또는 担当者가 弘報内容 方法등을 보는 観点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떠한 잇슈가 생겼을때 이를 政府関係者가 官僚的인 観点에서 다룬다면 対国民弘報는 오히려 逆効果를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危険을 事前에 막기 위해 国民들의 感覚에 比較的 예민한 弘報媒体従事者들의 意見을 参酌한다면 予想밖의 弘報効果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오늘날 우리의 統一弘報는 弘報効果測定이 全혀 되있지 않은 一方的인 것이다.

弘報資料가 나오면 그 弘報資料에 의한 弘報効果가 어느程度로 나타나고 있는지 全혀 測定되지 않고 있는 実情이다. 国民의 納税로 만들어진 弘報資料를 策定된 予算을 執行만 하면 끝난다는 安易한 思考方式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無事安逸主義的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弘報効果를 測定하여 이를 評価하는 機構와 制度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弘報効果의 測定 評価는 다음段階의 弘報内容을 企画하고 弘報事業을 展開하는데 있어 큰 教訓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5) 北韓 및 共産圏関係資料센터의 設置가 必要하다.

敵을 이기기 위해서는 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兵法의 真理이다.

北韓과의 宣伝戦에서 北韓을 이길 수 있는 길은 北韓의 内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다.

그러나 北韓에 関한 必要한 資料를 求得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政府関係機関間에서 까지도 資料交換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民間의 北韓関係研究機関에서는 어느政府機関에 가서 資料를 要求해야 하고 또 모르는 事項을 問議해야 할지 右往左往해야 할 現況이다.

資料의 独占은 統一弘報의 저해要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資料供給의 窓口를 一元化하는 資料센터의 設置가 時急하다.